

나의 꿈을 찾아서

Chasing Dreams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꿈꾸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꿈꾸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특pecially 유년기, 청소년기는 미래를 향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쳐 나가는 시기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이 저마다 독특한 꿈을 키우고 간직하여 그 꿈이 더욱 자라나기를 바라며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에서는 우리 2세들에게 한국어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발표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어느새 13회에 이르렀다. 이 책을 만드는

의미는 이제까지 나의 꿈 말하거에 참여
해 수상을 한 학생들을 찾아 현재 어떤일
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그 꿈
을 키워 나가는지를 찾아보는 데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축사



이 승 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 앙드레 말로

A person longing for any dream for a long time resembles that dream at last - Andre Malraux

2005년 제23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각 지역의 예선을 거친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는 우리 2세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꿈을 발표하며 미래를 펼쳐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의 꿈을 바르게 정립하도록 목표로 삼은 이 대회는 각 지역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이 저마다 소중한 꿈을 발표하며 모두에게 한글 교육을 통한 정체성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13회를 거치면서 약 200여 명의 학생이 자신들의 소중한 꿈을 발표하여 지역 예선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1회부터 13회까지 각 지역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본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나의 꿈을 찾아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로 참여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며, 추후 서로의 꿈을 존중하며 격려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나가고 한국학교와 협의회 그리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꿈을 찾아서...” 발간을 통해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학생들이 자신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학교 학생, 교사, 부모,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학생들에게 꿈을 간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 동포 자녀의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꿈을 말하고, 꿈을 적고 그리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나의 꿈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첫 단계입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나의 꿈을 찾아서...”가 본인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축사



고 은 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새로운 도전을 외치는 꿈의 나라” 맘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날입니다

“나의 꿈 말하기”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나날이 꿈을 키워 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잘 표현하여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미래를 그림으로 그리며, 그 생각 한 것을 이루고자 하고픈 마음이 있어도 모두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어릴적 부터 자신들이 이곳 미국에서 Korean American으로 미래의 리더로 자라려면 어떠한 생각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며, 어떤 힘든 과정에서도 극복하고 지날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과정중 좌절이 있었다 한들 그것을 토대로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더욱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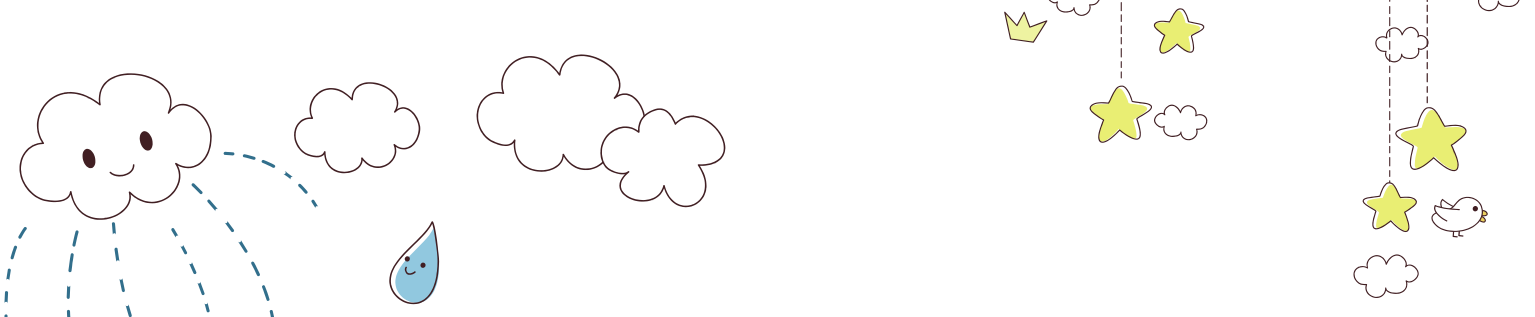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재외동포재단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
께 감사를 드리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이승민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집
행부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회원교 선생님들께도 힘찬 박수를 보내며 남은 시간까지 소중
한 교육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밝은 우리의 꿈나무들



2005년 제1회

- 참가자 12명 - 12대 지역협의회 대표
- 최우수상 : 최수인 (동북부 지역) '함께 꿈 꾸는 꿈'

2006년 제2회

- 참가자 15명 - 13대 지역협의회 및 해외 2명
- 최우수상 : 조윤정(미시간 지역) '꿈을 심는 농부'

2007년 제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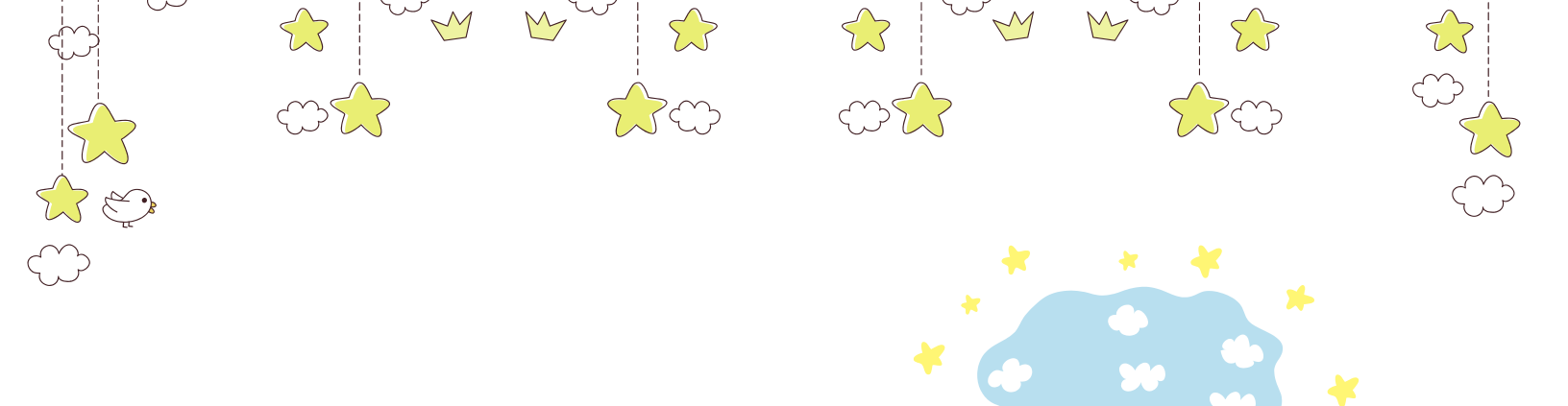
- 참가자 17명 - 13대 지역대표 및 해외 4명
- 대상 : 이재진(서북미지역) '세상을 섬기는 세계이장'

2008년 제4회

- 참가자 18명 - 14개 지역대표 및 해외 4명
- 대상 : 갈지연(뉴질랜드) '우리의 음식을 알리는 음식외교관'

2009년 제5회

- 참가자 18명 - 14개 지역 대표 및 해외 4명
- 대상 : 최지원 (남서부지역) '동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수의사'



2010년 제6회

- 참가자 17명 - 14개 지역대표 및 해외 3명
- 대상 : 이경미 (하와이 지역) ‘나의 꿈은 고아원 원장’

2011년 제7회

- 참가자 6명 - 4개 지역대표(예선 통과자)및 해외2명

2012년 제8회

- 참가자 8명 - 8개 지역대표(예선 통과자)

2013년 제9회

- 참가자 14명 -14대 지역 대표

2014년 제10회

- 참가자 14명 -14대 지역 대표

2015년 제11회

- 참가자 14명 -14대 지역 대표

2016년 제12회

- 참가자 14명 -14대 지역 대표

2017년 제13회

- 참가자 11명 -11대 지역 대표



남서부지역의 꿈나무



1회

백민정 (휴스턴한국학교)

‘통일의 그날까지---’

2회

강지호 (칼리지스테이션비전한국학교)

‘비올라를 연주 하는 꿈의과학자’

3회

조동현 (휴스턴한인학교)

‘나의 꿈 농구선수’

4회

이희수 (달라스한인학교갈랜드캠퍼스)

‘멋진선생님’

5회

최지원 (포트워스한인학교)

‘동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수의사’

6회

김진솔 (킬린한국학교)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하는 ...’

7회

해당사항없음

8회

남미나 (새누리한국학교)

‘나의 한송이 꽃’

9회

전혜린 (알칸사제자들한국학교)

‘행복전도사’

10회

박이빈 (달라스한국학교)

‘제꿈은 배우 입니다.’

11회

박상윤 (알칸사제자들한국학교)

12회

이지현 (알칸사제자들한국학교)

‘역사를 바꾸는 식품 과학자 ’

13회

정예송 (뉴송한글학교)

‘한국 문화 전도사’



나의 꿈, 농구 스타 (3회)

조 동 현 Dong Hyun Cho 휴스턴한인학교 6학년



저는 NBA 최고의 한국인 농구 선수가 될 겁니다.

제가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이유는 농구를 할때면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고 또 내가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농구스타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내이름이 적힌 농구복을 사서 입고, 또 나의 사진을 걸어 놓게 하고 싶습니다.



멋진 선생님 (4회)

이 희 수 달라스한인학교갈랜드캠퍼스 (7학년)

제 꿈은 멋진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어서 빨리 배워서 제게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깨우쳐 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에요.

6학년 때 과학을 가르치신 선생님 때문에 제일 싫어하던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이렇듯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고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저, 이 희수의 꿈입니다.





동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수의사 (5회)

최 지원 포트워스한인학교 5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워스 한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최지원입니다. 누군가 지금 제게 “넌 꿈이 뭐냐” 고 묻는다면, 전 망설임없이 “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니까요. 저는 털이 부드러운 강아지도 귀엽지만 다른 사람들이 징그러워하는 뱀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새침대기 고양이도 사랑스럽고 먹고 잠만 자는 코알라도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친구들은 동물들이 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너무 고약하다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말으면 말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의 향수와도 같습니다. 제 방은 동물 사진과 책들로 가득하고, 개구리, 악어, 물개 인형들에게도 모두 이름을 지어주고 집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에게 수의사의 꿈을 갖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엄마 아빠와 달라스에서 손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씨 좋게 생긴 아줌마는 자신이 동물 의사라고 소개하시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때 선생님의 손이 밤송이처럼 까칠까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수의사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동물들은 가끔 말을 안들어. 하지만 아픈동물을 치료한 뒤에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단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처가 많아 까칠해진 손이었지만 저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궁금해서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동물들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할 수가 있죠?”

“호호호, 동물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거야. 동물들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란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렴. 그럼 지원이도 동물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단다.”

“동물들이 말을 한다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들었지만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멋지고 따뜻한 모습이 아마도 나에게 수의사의 꿈을 갖게 했나 봅니다.

그 후로 저는 동물에 관련된 책을 즐겨 읽고, 또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하고 많은 동물의 이름과 특징도 모두 알아야 되니까요. 친구들과 놀거나 닌텐도 게임시간을 가지지 못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야 겠습니다. 그런 후에 저도 노력하면 언젠가 따뜻한 마음으로 아프고 약한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수의사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어제 지나가는 길에 차에 타고있는 조그마한 푸들 한마리를 보았어요. 엄마는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고 불평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원아, 안녕! 내 이름은 루카스야. 어서 커서 수의사가 되어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우리 주인은 내 말을 도통 못알아 듣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동물의 말을 조금 알아 듣는 답니다.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이 커다란 나무도 자그마한 씨앗일 때가 있었겠지요. 아직까지는 작은 소망이지만 나의 꿈을 간직하고 이루려 한다면, 저 큰 나무처럼 나에게도 푸른 미래가 다가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는... (6회)

김진솔 킬린한국학교

저는 마음이 따뜻한 의사, 환자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의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환자들에게는 물론 약도 중요하고 주사도 중요하지만, 밝은 생각과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웃음은 엔돌핀을 만들고, 엔돌핀은 나쁜 병균을 이기기 때문에 약 보다는 더 중요한 약이니까요. 언젠가 TV 에서스페셜올림픽을 본적이 있는데 진짜 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돕고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저도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저는 피아노 치는 걸 무지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나만의 곡을 만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위해 만든 희망이 가득 찬 그런 곡을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한 작은 피아노 연주회도 열고, 피아노 소리에 사랑이 가득 담긴에너지를 환자들에게 듬뿍 나누어 줄 것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의사 선생님이 아닌, 유명 하지는 않지만 아무 보상도 없이 치료하는 의사선생님처럼, 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가는 봉사자들 처럼 사랑이 담긴 음악을 들려주며 여러분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하얀가운을 입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의 한송이 꽃 (8회)

남 미 나 새누리한국학교

제가 Elementary School 5학년 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면서 <꿈> 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꿈이란, 저의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한 송이,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는 것입니다. 5 학년이 었던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꿈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앞에 놓인 많은 갈래의 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나이 이제 11 살. 조금씩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알아가는 나이..... 내 삶을 내 색깔로 칠하면서 살고 싶기도 한 사춘기 소녀..... 또, 예기치 않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의 대해 책임이 따르는 나이입니다. 1 년 전, 어머니께서, 머리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계신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보고 싶은데, 병원에 가도 되요?” “아니야. 오 지마. 나중에 보자..” “ 그래도 엄마 보고 싶은데...” 처음에는 엄마가 병 원에 오지말라고 하셨지만, 1주일후에 엄마를 보러 기쁜 마음으로 병 원에 갔을 때, 그곳에 힘없이 초라하게 누워계신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 니다. 머리가 깎여져, 반으로 길게 나누어져 있는 수술자국, 그리고 24 개의 스테이플로 봉합된 엄마의 머리는 저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 이었습니다.

예전에 힘있고 강하고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병원에 오지말라고 하셨던것 같아, 저도 모르게 슬 퍼지면

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엄마가 아프지 않게, 도화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진정한 의사, <이태석 박사님>이라는 한국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태석 박사님은 아프리카 수단 톤지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을 온 몸으로 보살피며 진정한 의술을 펼치셨고 그 곳의 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희망을 주는 음악을 알게 해 주신 분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은 열정적인 봉사의 삶으로 그 곳 사람들의 몸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시고 끝내 자신은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시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 곳을 걱정하시던 그 분의 삶은 엄마의 수술 모습을 본 후 무작정 의사가 되려고 했던 내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몸이 아파 웃음과 희망을 잃은 얼굴들을 보며, 꼭 의사가 되어, 그들의 얼굴에 웃음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같이 들어가서, 아파 보고,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꿈이 조금 더 커진다면, 이 지구 어딘가에 살기 어렵고 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제 작은 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태석 박사님처럼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저의 꿈을 더욱 더 키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원했던 작은 꿈을 이루어 한 송이 꽃을 피운다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이루는 꽃을 피운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각의 색깔로 덮인 아름다운 꽃밭이 되겠지요. 그 꽃밭은 우리 모두를 넉넉히 감싸주고 덮어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태어난 제가, 작은 씨앗 속에서 나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이미 꽃밭을 이루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며, 저 역시, 그 아름다운 꽃밭의 한송이 꽃이 되는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꿈은 배우입니다. (10회)

박 이 빈 달라스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스 한국학교 5학년 박이빈 입니다.

제 꿈은 배우입니다.

제가 왜 배우가 되는것이 꿈이냐면 저는 연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재미 있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으며 저는 배우라는 직업이 참 멋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인형놀이나 연극놀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또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하는것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 또한 무대에 서는것도 행복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재미있고 또 감동도 받으며 그 연기를 인형놀이를 하면서 따라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드라마 클럽을 합니다.

신데렐라 연극을 할때였는데 제가 거의 신데렐라 역할을 할뻔 했는데 왕 자역할을 맡은 3학년 아이가 키가 너무 작아서 저와 어울리지 않아 저는 신데렐라 역할을 하게 되지 못했어요..

요새는 여자가 나이가 많은 커플이 유행인데 그냥 제가 했으면 더 웃긴 새로운 재미를줄수도 있었을텐데 아쉽게 됐어요..ㅎ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요술할머니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할은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신데렐라 드레스가 너무 커서 그 드레스는 제가 입게 되었어요^^ㅎ)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기회도 찾아 옵니다.
주인공과 조연들, 또 뒤에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작품을 만든다는것이 참 매력적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드리 햅번이라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어느날 우연히 오드리 햅번의 사진을 보고 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얼굴만 예쁜것이 아니라 선행을 많이한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드리 햅번이 남긴 말들중에는
"날씬해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조금 통통 한거 같아서요..ㅎ"
앞으로는 친구들과 좀더 나눠 먹어야 겠어요..^^
물론 이말은 단지, 음식만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공연할때 무대에 서면 벅차오르는 감동을 받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저는 매일 내가 어떻게 클 꺼고 어떻게 살건지 생각합니다.
훌륭한 배우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면
오드리 햅번 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나의 꿈 3년후

박 이 빈 달라스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애나에서 열린 제10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참석했던 박이빈입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전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때였는데 지금은 중학교를 졸업 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고등학생이 됩니다.

작년에 전 한국에 계신 외할머니 댁에 다녀 왔습니다.

한국말을 자연스레 하는 저를 보시고는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엄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삼촌과 멋진 제주도 여행도 함께 했습니다. 삼촌과도 편하게 재미있는 대화들을 나눌 수 있어 더욱더 친밀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엄마랑 자주 한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 산책을 하다 이마트에 들러 맛있는 빵이랑 커피우유를 사 먹곤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남대문시장 이였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였어요.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볼거리들 호객 행위도 재미있었구요.^^

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한국냄새가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들이 어우러진 정겨운 냄새예요~ ㅎㅎ

아무때고 어디든 나가면 많은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한국이 그림습니다.

어떤 다른 여행 보다는 한국에 자주 가고 싶어요. 저는 저의 꿈들을 이루기 위해 현재 제 자신의 생활을 충실히 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음악들도 듣고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도록 책도 읽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밴드 활동으로 한국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는 못 했어요. 저는
밴드에서 플루트를 연주합니다.

지난번 All City Band 에서는 아리랑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뿌듯함과 몽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디애나에서 처럼요.
인디애나에서 흘러나온 아리랑이 생각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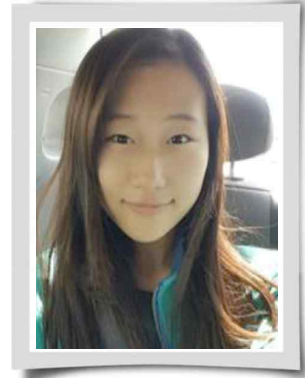
예쁜 한복을 입고 애국가도 부르고 아리랑에 저절로 어깨춤을 추었던 그
때 전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인디애나에서의 시간들은 저에게 많은 새로운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언니 오빠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다 생각하니 참 반갑고
좋아요.

이런 시간들을 갖을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marching band 와 연극반 수업을 합니다. 영어
수어도 배워요.
가끔 친구들은 고등학교는 지옥?과 같다고 할 정도로 힘들다고들 하는데
전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요.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길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식품 유전 과학자 (12회)

이 지 현 알칸사제자들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알칸소 제자들 한글학교에서 온 미래의 식품 유전 과학자 이지현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왜 굳이 식품 유전 과학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교회에서 보게 된 사진 때문입니다.

그 날 그 교회에서는 아프리카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진을 보여주며 모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한 채, 더러운 곳에 누워 있는 많은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은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5 초에 한 명이 지구에서 배고픔으로 죽어간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는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는 원래 농작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 아닌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7학년 생물을 배울 때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번쩍 생각났습니다. “만약 물이 없는 뜨거운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의 유전자를 우리가 먹는 식물에 넣는다면 어떨까? 그러면 아프리카의 기후에서도 맛있는 과일과 야채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 날 이후로 저는 식품 유전 과학자가 되어 아프리카와 같은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도움을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원래 좋아했던 과학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생물과 유전자 공학에 관련된 책도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전 과학을 주제로 과학 경시 대회에 나가서 발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대학 연구실에서 과학 기계의 사용법과 연구하는 방법도 배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제 연구실에서 직접 연구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 있기도 한, 일리노이 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은 옥수수의 생산량을 4 배 이상 증가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낸 George E. Morrow 이라는 교수님께서 계셨던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식품 유전 과학을 공부해서 아프리카와 같은 토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역사를 바꾸는 미래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 일생을 바쳐 연구할 것입니다!

나중에 아프리카에서도 잘 자라는 맛있는 과일과 야채가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제 이름을 찾아봐 주세요. 저는 미래의 식품 유전 과학자 이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 전도사 (13회)

정 예 송 뉴송한글학교



꿈. 곧 장래희망은 미래의 바라는 방식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라고 사전에는 정의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딱히 하고싶은 직업을 찾지 못 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느새 제 자신을 보니 더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일년 후가 지나면 성인이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 코 앞에 곧 닥칠 대학교를 앞둔 저는 현실적으로 꿈을 꺾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다른가?' 라는 생각도 했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상속 내 미래의 모습때문에 고민이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작게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단순히 케이팝을 미국에 사는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꿈을 키워서 오랜 역사의 한국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돕는 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지만 우리 가족은 그 안에서 한국 문화로 살고 있으며,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고등학생이라 바쁘고, 한국어를 잘 읽고 쓰기도 하는데, 왜 한글학교

를 다니니, 그냥 보조 선생님이나 하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한글학교를 다닌게 아닙니다. 저에게 꿈이 생긴 것처럼 한글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표를 이루려면 충분한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생긴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훌륭한 의사나 변호사를 꿈꾸고 이룹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과학에는 자신도 없고, 법은 저에게 지루하기만 합니다. 저랑 가장 친하고,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내게 추천을 했습니다. “너는 영어도 잘 하고 한국어도 잘 하는데 동시통역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애”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동시통역사를 꿈꾼 적도 있었지만, 세상은 발전이 되어 사람이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기계에 의지하는 일이 많아졌으므로 통역사의 역할도 이제는 기계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이 국제 비즈니스입니다. UN이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FIFA가 축구로 전세계를 하나가 되게 돕듯이, 미국에 있는 한국 문화 기획사에서 한국 문화와 콘텐츠를 알리는 한국문화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리면 케이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의 힘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면들을 더 많이 알게 하고 싶습니다.

비록 한국은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과 같이 모두에게 한국의 숨어있는 놀라운 문화를 알리겠습니다. 5000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해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있게 알려주겠습니다.

내 꿈을 이루고 그것의 도움으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이 “Are you Chinese or Japanese” 라고 묻지 않고, “Are you Korean”이냐고 묻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어 한국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일에 참여 할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꿈나무





1회

구 드보라 (북부보스턴한국학교 8학년)

‘축복을 나누는 작가’

2회

유하나 (뉴잉글랜드한국학교 8학년)

‘제삶을 보람으로 가득 채울 나의 꿈’

3회

윤상아 (북부보스턴한국학교 9학년)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이 먹네’

4회

김지현 (북부보스턴한국학교 7학년)

‘나의 긴머리’

5회

서현옥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이루고싶은 나의 꿈’

6회

장유진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경기’

7회

한민아 (메인한국학교)

‘나의 꿈’

8회

남미나 (새누리한국학교)

‘나의 한송이 꽃’

9회

오인희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미국과 숨 쉬는 한국어 전도사’

10회

황성빈 (보스턴장로교회한국학교)

‘나의 밥 이야기’

11회

김모레 (우스터한국학교)

12회

이하리 (북부보스턴한국학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3회

박정민 (밀알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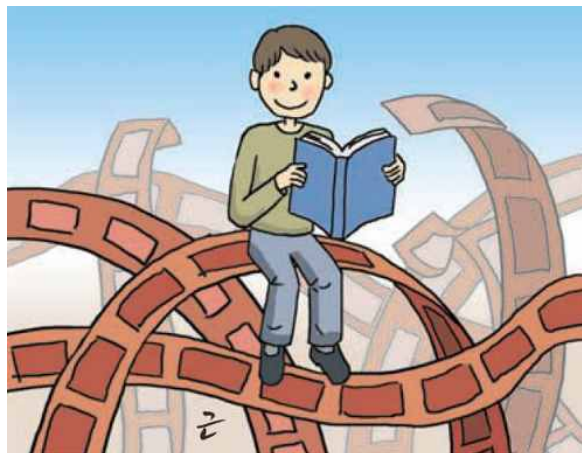
‘나의 꿈’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 먹네 (3회)

윤 상 아 Sang A Yoon 북부보스턴한국학교 9학년

“제 꿈은 재미있는 소설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위인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만드는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배경음악과 향기입니다. 한국적인 농악놀이, 판소리, 대금소리등을 영화에 넣고, 다른 서양악기들도 적당한 장면에 잘 활용하여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분위기와 장면에 어울리는 향기가 나는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사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나의 긴머리 (4회)

김 지 현 Petty Kim 북부보스톤한국학교 7학년

저는 나중에 커서 저의 자선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병원,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동물들 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진 사람들에게 예쁜 가발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머리를 기르고 있고 동물 보호서와 유니세프 등의 단체에 작은 돈을 도네이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고 정성이 드는 것인지 기억하면서 꿈을 가지고 제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꿀 것 입니다.





이루고 싶은 나의 꿈 (5회)

서 현 옥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저는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제 별명이 책벌레 입니다. 하지만 눈이 피곤해서 책을 맘껏 못 읽을 때도 있다 보니 점점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안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안과 의사가 되고 싶은 첫째 이유는 우리의 신비로운 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처럼 눈이 나쁜 사람 들에게 치료를 해줘서 희망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안과 의사가 되면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안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눈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으면 제 마음은 따듯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찾는 경기 (6회)

장 유 진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또 미국의 방식과 정신만을 갖춘 미국인도 아닙니다. 태어나고 생김새가 닮은 한국과 자라고 배워 온 미국, 두 나라의 장점을 두루 갖춘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 확실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하겠지만 제 꿈은 무엇을 하든지 두 나라가로부터 배우고 얻은 많은 것을 사랑과 진심을 다해 들려 주는 것입니다. 제 장래희망은 소화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로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주고 싶고,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대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열심히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자라고 있는 미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을 유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 가면서 제게는 땀해야 땀 수 없는 두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싶습니다.



나의 꿈 (7회)

한민아 메인한글학교



제 이름은 한민아이고, 제 꿈은 바로 한국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만 자란 18살 백인 여자예요. 보통 미국인들과 조금 다르지요. 4년 전에 한국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한국어라는 이 아름다운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간단함과 탁월함을 깨달았을 때, 한국어에 깊이 반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4년 후인 지금도 제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한국어를 공부할수록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은 깊어지고 있어요. 사실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제 첫사랑을 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 났어요. 정말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한국에 살고 싶어져서, 한국으로 이민 가는 것도 제 장래희망 중의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어 덕분에 제가 어른이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알아차렸어요. 어릴 적부터는 언어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모국어와 이렇게 다른 외국어를 공부해서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졌어요. 무엇보다도 언어의 기능을 더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국 대학교 중에 언어학을 전공할 수 있는 데가 아주 많아도 한국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게 저한테 훨씬 더 나을 듯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한국어를 쓸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작년 8월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처음이었어요. 인천공항 안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까지 제 인생에 제일 기쁘고 신기한 2주였어요. 제 두 눈으로 창덕궁과 북한까지 보았고, 제 두 손으로 장구를 쳤고, 제 두 귀로 판소리와 가야금을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거실에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비가 내렸던 때는 제 기억 속에서 웬지 빠지지 않아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맑은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제 꿈이에요. 제 인생은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언젠가는 꼭 돌아갈 걸 믿어요. 제 꿈을 제 현실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고 싶어요 (12회)

김 하 리 북부보스톤한국학교



저는 어릴 때부터 잘 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의 몸에는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체육 시간에 넘어져 1년이 넘는 시간을 고생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 그리고 저의 부주의 때문이었죠. 발이 낫지 않았을 때는 하루하루가 슬프고 괴로웠어요.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외롭기만 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피겨스케이팅도 그만둬야했고요 친구들과 오랫동안 같이 뛰어놀지 못해서 친구들과의 우정도 멀어졌어요. 정말 그때는 어두운 동굴 속에 혼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저는 한 재활치료사 할머니를 만나서 운동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연세가 아주 많은 할머니였는데 그 분은 치료를 해주실 때 다른 선생님들처럼 지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애리얼! 이렇게 해보는 거야!

왜, 이 할머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같은 아이가 벌써 지쳐 있어? 그렇게 쉬고 있으면 나을 것 같니? 더 빨리!” 이러시며 저에 힘을 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직접시범을 보여주시고 중심잡기, 뛰기, 한 발로 점프하기...등을 저랑 항상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밝은 얼굴로 저의 기분까지도 좋아지게 만들어 주셨죠. 그때 저는 나도 자라면 아픈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걸스카우트 활동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홈리스 분들을 직접 우리 걸스카우트들과 부모님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할 수 있

게 해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남미에서 온 친구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영어도 가르쳐주고 숙제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저처럼 몸이 넘어져 육체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스카우트를 통해서 봉사와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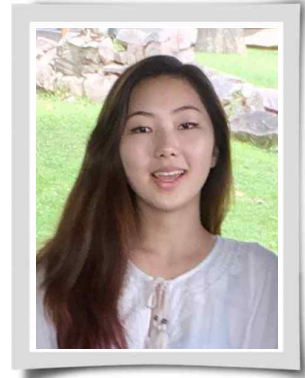
저는 사실 어른이 되면 무슨 직업을 갖겠다 하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13 살이니깐요. 확실한 것은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슨 일을 하든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고 이 사회에 넘어서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관리를 해주는 사회 복지사, 다친 사람들을 일으켜 주는 데 도움을 주는 재활치료사, 법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 세계 여러 곳에 인권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UN 사무관, 국가 정책을 만들어 많은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인....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준비를 위해 저는 저의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 번 100 번을 생각해 보아도, 저는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인 저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만, 어디에서던 작은 부분이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제 미래에 다가갈 수 있고, 더 많은 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나의 꿈 (13회)

박 정 민 밀알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10 학년에 있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에세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무엇에 대해 써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부터 꿈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어렸을때 케이팝의 폭 빠져서 케이팝 아이돌이 간절히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돌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케이팝 아이돌이 되면 멋진 오빠들도 사귀고 매주 런닝맨 같은 쇼에 나올거야”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에게 오디션에 데려다 주라고 졸랐습니다. 심지어 혹시라도 나를 스카웃 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봐 한인 마트에 갈 때 마다 노래를 크게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꿈꾸었던 아이돌이라는 꿈은 서서히 없어졌지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돌 처럼 주인공 보다 그런 스타들을 도와주는 음악 아니면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또는 노래를 해서 음악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멋진 아이돌 오빠들을 위해 히트곡을 작곡하고 싶었습니다. 또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또는 대장금... 다 들어 보셨죠? 저는 이런 드라마의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작가로서 따라오는 파워를 갖고 싶습니다. 제가 쓰는 대로 송중기가 다 연기를 해야 된다는게... 참 신기 하지

않나요? “송중기: 송혜교에게 고백하라!” 하면 송중기가 제가 쓴 데로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은 아이들이 꾸는 꿈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크면서 엔터테인먼트는 아무나 갖는 직업이 아니라는 슬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상식적인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 봉사 시간이 필요해서 매주 로웰에서 난민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버르마라는 나라에서 왔길래 이 아이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이 센터에 가서 이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봉사 시간을 얻으려고 한 것인데 돌아서 보니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안 태어나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제가 벌써 저 같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저에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매주 가는게 쉽진 않아도 저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면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 봉사 활동을 이제 이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 미래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 봉사 활동을 통해 제가 이렇게 말을 잘못하는 아이들을 말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말을 할 수 있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수업시간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들과 잘 소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많은 아이들이 다수의 이유로 말을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치료사, 아니면 영어로 Speech Therapist 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옛날의 저처럼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물론 송중기 오빠를 도와주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에겐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떨리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꿈을 얘기 하듯이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언젠간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게 저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동남부 지역의 꿈나무



1회

김상근 (아틀란타한국학교 9학년)

‘자랑스런 아들’

2회

이진성 (아틀란타한국학교 10학년)

‘내가 존재하는 이유’

3회

이종원 (넷가에심은나무한국학교 7학년)

‘친구같은 의사가 되어 드릴게요’

4회

박관용 (어거스타감리교회한국학교)

‘철가방보다 멋진 변호사’

5회

신동석 (넷가에심은나무학교)

6회

해당사항없음

7회

해당사항없음

8회

성일현 (대건한국학교)

‘따뜻한 리더의 꿈’

9회

박예영 (멤피스은혜한국학교)

‘의사’

10회

최미래 (메이콘침례교회한국학교)

‘벚꽃같은 통역사’

11회

이새해 (애틀랜타한국학교)

12회

이인빈 (사랑의한국학교)

‘작지만 큰 희망’

13회

박아이린 (애틀랜타한국학교)

‘친구로부터 시작된 나의 꿈, 선생님’



친구같은 의사가 돼 드릴게요 (3회)

이 종 원 Jason Lee 넷가에심은나무한국학교 7학년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웃긴 말을 하거나 웃긴 행동을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빠, 엄마는 제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재능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소중한 제 환자들이 너무 아파할 때 최고의 실력으로 믿음을 주고, 웃음으로써 엔돌핀이 많이 나와 더 빨리 치료가 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철가방보다 멋진 변호사 (4회)

박 관 용 Kwanyong Jeseoph Park 어거스타감리교회한국학교

어렸을 때 자장면을 좋아하는 저는 열면 자장면이 나오는 은색 철가방이 너무나 신기하고 멋져 보여서 이담에 크면 철가방 아저씨가 되고 싶었습니다. 좀 크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특별히 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서반아어까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언어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과 가난하고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실력있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꽃동네에서 꾸는 꿈 (5회)

신 동 석 냇가에심은나무한국학교

저는 요즘 꽃동네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사가 되게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치료해 줄 의사가 마땅히 없고 가족에 버려져서 몸도 마음도 아프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작은 꽃동네 안에도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까 생각을 했어요. 환자를 찾아가는 의사가 된다면 이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영어를 잘 못해서 답답한 경우도 많다고 하시는데 저처럼 한국말 하는 의사가 와서 도움이 되면 저는 또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뛰어난 의술과 봉사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명 받았습니다. 저도 미국에 사는 한인 한국인 의사로서 다른 나라, 특히 우리 동포들이 사는 북한에 있는 불쌍한 환자들에게 직접 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꿈나무를 키우는 자 (6회)

정 사 라 스린스보로한국학교

저는 아직도 꿈꾸는 자이지만 이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위로와 목적은 다음 시대에 아이들한테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초등부를 위한 성경 공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년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이 세 명뿐인 저희 반을 보면서 처음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되게 '두려워하지 말라' 시며 '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나 나는 네가 나와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준 힘을 갖고 이 아이들을 인도해라 왜냐하면 나는 꿈나무를 키우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르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겸손히 하여 남을 도와주고 꿈나무를 키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평생 동안 하고 싶습니다. 계속 일을 이르면 온 세계가 하나님을 거는 꿈나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온세상이 하나님을 꿈꾸는 자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제 꿈입니다.



따뜻한 리더의 꿈 (8회)

성 익 현 대건한국학교

나의 꿈이 무엇일까?

‘나의 꿈’에 대한 글을 쓰라고 들었을 때 머리가 갑자기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예쁜 바비인형이 되고 싶었고, 조금씩 커가면서 의사, 발 레리나, 비행기 조종사, 글 쓰는 사람 등등등 꿈이 자꾸 변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빠한테 어떻게 나의 꿈을 고를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빠는 ‘무슨 일을 할까’보다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말씀을 듣고, 나는 얼마전에 읽은 김구 선생님 책이 생각났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늘 사람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책에서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많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을 수 있어야 새사람 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나도 김구 선생님처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님 영화도 생각났습니다. 인도에서 가난하고 버림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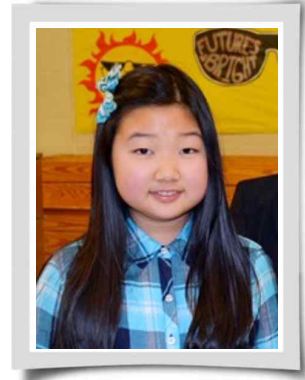
나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나의 소망에 맞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학교생활도 열심히하고 리더십을 배우면서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갖다보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가슴뛰게하는 일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흥미를 갖는 일이 바뀌면서 꿈도 자꾸 변할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용기를 갖고 도전할 것입니다. 또한,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따뜻한 리더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변하지 않는 꿈입니다.



친구로부터 시작된 나의 꿈, 선생님 (13회)

박아이린 애틀랜타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학교 박 아이린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가보셨겠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난 것도 많이 보
고 신났었나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하고 화려한 한국을 보게 되어서 깜짝
놀라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얼굴이 나와 많이 닮은 내 친구는 그런 한국에 가보고 싶어하지 않
습니다. 아니, 한국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
었어요. 어릴 적 한국을 떠나 백인가정에 입양을 와서 한국말과 문화를 배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앞에선 한국말이나 한류에 대해서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
지요? 미국에서 태어난 나는 한국이 자랑스러운데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에서 살게된 그 친구는 한국이 부담스러웠나봐요.

그 친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나는 Peachtree Ridge High School의
교감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 분도 한국 입양아 출신이며 어릴 적 한국어
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친구도 어른이 되면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습
니다. 수많은 한국출신 입양아들도 그러겠지요?

그런 친구를 보며 나는 소중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의 꿈은 한국에서 입양왔지만 한국을 미워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예쁜 언어와 아름다운 문화, 자랑스러운 역사, 따뜻한 한국인의 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처럼 한국인의 얼굴로 태어났지만 한국말도, 한국도 알지 못하는 입양아들은 얼마나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힘들까요? 한국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한국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준다면 그들이 나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게 될 때에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이 한국인임을 깨달으며 “그래. 나에겐 멋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 나도 해 낼 수 있을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한국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더 많이 한국을 배우고 이해한다면 이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입양아들에게도 오천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역사속에서 우리 민족이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한국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그런 한국인이니 너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을 사랑하고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나의 학생들을 떠올리며 나는 나의 꿈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의 꿈을 응원해 주실거죠?

감사합니다.

동북부 지역의 꿈나무



1회

최수린 (프린스턴한국학교 9학년)

‘함께 꾸는 꿈’

2회

임상현 (성김대건한국학교 8학년)

‘저는 큰나무가 되고 싶어요’

3회

손주희 (아콜라한국문화학교 8학년)

‘밍크코트를 입지 마세요’

4회

조오치 (사랑한국학교)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

5회

이수정 (뉴저지한국학교)

‘내가 너희들의 낙하산이 되어 줄게’

6회

이강산 (성김대건한국학교)

‘두가지 꿈’

7회

해당사항없음

8회

유영 (갈보리문화학교)

‘영이의 꿈’

9회

이주영 (스태튼아일랜드한국학교)

‘평화를 위한 한걸음’

10회

임세현 (우리한국학교 8학년)

‘도움을 주는 나무’

11회

박세웅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사랑의 야구’

12회

지한별 (세종한국학교)

‘한결 맛있는 요리로, 한결 행복한 세상을 요리 할래요!’

13회

이조은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국어를’



함께 꾸는 꿈 (1회)

최 수 린 프린스턴한국학교 9학년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외딴 산등성이에 바위 한 덩어리와 진달래꽃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바위는 아무도 오지 않는 산모퉁이에서 진달래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아내곤 하였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바위는 진달래 가지에 이상한 것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고치였습시다. 바위가 물었어요. “그 속에 누가 있니?” “네 애벌레예요.” 바위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너도 갇혀 있구나?” “아니요. 저는 갇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고치 속에서 꿈을 꾸는 걸요. 나비가 되어서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나는 꿈을요.” 그러자 바위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저렇게 조그만 고치 속에도 꿈이 있는데 나는 뭐람?’ 그때 애벌레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무슨 꿈을 꾸나요?” “꿈? 나같이 닫힌 가슴속에 무슨 꿈이 있을 수 있겠니?” “에이 아저씨는 크니까 나보다 더 큰 꿈이 있을 텐데요 뭘.” “뭐라고 더 큰 꿈이라고?” “그럼요 뜻깊은 비석이 된다거나 멋진 조각품이 된다거나요.” 그제서야 비로소 바위의 가슴은 빨갭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빨갭게 달아오르는 꿈, 여러분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들을 들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널싱홈에서 노인들과 빙고 게임을 할 때 카드를 꼭 쥐고서 다음 숫자를 부르는

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꼭 유치원 어린이들 같을 때 저의 가슴은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금요일 저녁에 성당에 모여서 유스 그룹과 함께 Soup Kitchen에 보낼 수백 개의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누군가가 이 샌드위치를 먹고 배고프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제 가슴은 또 빨갛게 물이 듭니다. 지난여름 YMCA에서 캠프 카운슬러로 봉사할 때 한국에서 온 여자아이가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울다가도 저만 보면 달려와서 환하게 웃음 지을 때 저의 가슴은 또 분홍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쓰나미 피해 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음악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계획하였습니다.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 내느라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들을 위해 작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학교 서비스 클럽과 함께 정신지체 장애인들과의 커뮤니티 댄스에 갔을 때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들의 자유로움에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한국에 다녀올 계획인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 나라를 방문하는 영어권 입양아들의 통역을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 외에 저는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리더쉽 훈련도 받습니다. 올해는 Somerset Youth Leadership 프로그램에 일 년간 참여하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Girl Scout, Somerset Youth Council, 학교 Student Council 멤버로서 크고 작은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쯤에서 아마 여러분은 저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꿈은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 시간, 지식, 음악적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준다거나, 변호사나 의사가 되어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꿈은 꼭 무엇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제가 가진 것은 언제나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나누어 줄 이웃



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꿈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 가슴 속에 있는 꿈 한 조각을 나누어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제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대상 최수린 인터뷰

* 제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발표한 꿈이 생각나는지?

나의 꿈 대회 참가 제목이 “함께 꾸는 꿈”이었다. 스피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꿈은 무엇이 되는 꿈이라기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이웃, 내가 속한 커뮤니티,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과 나누며 더불어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 대회 당시 발표했던 꿈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

나의 꿈 대회 이후 나머지 고등학교 생활에서, 대학에 진학해서, 이후의 직장 생활, 또 law school에 다니는 동안 작게나마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꿈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대학 시절에는 감옥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청소년을 방문하여 GED 시험을 볼 수 있게 가르쳤고, 밴드 단원과 함께 악기 드라이브로 모은 악기를 코스타리카에 가져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쳤으며, 성당을 통해 과테말라에 봉사를 다녀온 후 인연을 맺은 아이에게 교육비를 후원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는 할렘의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의 공부방을 매주 방문하여 공부도 봐주고 이야기도 나누는 멘토를 하였다. 콜롬비아 대학교 법대를 다니면서는 자국에서

정치적 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돕는 프로보노에 참여하였다.

* 앞으로 또다른 꿈이 있는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며 살고 싶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나의 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 대학을 지원한다든지 또 대학원을 진학할 때 내가 지향하고 있는 삶이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고민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꿈 이야기 대회는 나만의 여정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된 것 같다. 나의 시간을 나누고 열정을 나누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law school에 진학하게 되었다. 앞으로 lawyer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동안 나눔에 관한 나의 꿈도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밍크코트를 입지 마세요 (3회)

손 주 희 Erica Son 아콜라한국문화학교 8학년



“밍크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밍크라는 동물이 50 마리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 꿈을 이루어 수의사가 된다면 매일매일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동물들이 한 두 마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엾은 생명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사랑이 가득찬 마음으로, 그 많은 동물들을 감싸 안아주고 싶습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짧은 삶을 그나마 편히, 즐겁고 걱정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해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 (4회)

조 오 치 사랑한국학교

“요즘 저는 멋진 건물을 보면 그안을 상상해 봅니다. ‘건축가가 왜 그 빌딩을 그런식으로 지었을까?’ ‘나같으면 어떻게 디자인 했을까?’ 생각하며 건축과 설계에 대한 책이나 인터넷 자료도 찾아 봅니다. 제 꿈은 유명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건축가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레고로 박물관을 짓던 밤처럼 재미로 일에 푹빠지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가지 일을 마치면 얼른 다음 일을 시작하고 싶은 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편하고도 유익한 공간,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건물을 만드는 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연과사람에게 모두 이로운 집과 빌딩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낙하산이 되어 줄게! (5회)

이 수 정 뉴저지한국학교

저의 꿈은 절망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진실한마음과 믿음으로 희망을 주는 상담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고민 해결사’ 였고 제 동생 친구들이 서로 싸우거나 할때도 중간에서 잘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친절하신 코소프 선생님의 영향이 큼니다. 얼마전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게 되어서 자신감을 잃고 절망해 있을때 코소프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과 미소가 저를 ‘불합격’의 슬픔에서 벗어 나게 해 주셨고,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추락하면 제게 낙하산을 달아준 코소프 선생님같이 제 학생들의 낙하산이 되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아이들을 무사히 그들의 꿈이라는 목표지점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두 가지의 꿈 (제6회)

이 강 산 성김대건한국학교



금강산 북쪽 마을,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무척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있는 곳 이래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요.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에게 끌려가시던 중 몰래 도망을 하시다가 등과 엉덩이에 총을 맞으셨어요. 그 후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셨고 다시 고향에 가 볼 수가 없으셨대요. 지금도 가끔 창밖을 보시며 할아버지의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십니다.

나는 책 읽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좋아해요. 모든 종류의 책을 좋아하지요. Shakespeare, Edgar Allan Poe의 시, Harry Potter series. 물론 최고는 Dan Brown의 소설이죠.

책을 읽다 보니 글 쓰는 것도 좋아하게 됐어요. 5학년 때 선생님께서 내가 쓴 글을 읽으시고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발표하게 하시고, 이다음에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칭찬해주셨어요. 그 후에, 나는 Uncle Tom's Cabin이라는 소설이 미국의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데 영향을 준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커서 작가가 되면 할아버지 이야기를 써서 전쟁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지는 슬픔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타리스트도 될 거예요. 다섯 살 때 발가락 단추를 누르면 기타를



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인형을 선물 받았어요. 그런 이유로 배우게 된 기타가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게 됐죠. 연습하는 것이 즐겁고, 또 무대에서 연주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기쁨과 자신감이 솟아났어요. 지난해에 Juilliard Pre-College에 합격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찾아 왔어요.

내가 열심히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 중인 사라예보에서 빵집 앞에 떨어진 폭탄으로 빵을 사려고 기다리던 어른들과 아이들 스물두 명이 죽었어요. 다음 날 그 시간에, 그곳에서 어떤 첼리스트가 Albinoni의 Adagio G단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연주하는 동안 점점 총소리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주는 22일 동안 매일 오후 4시에 계속됐어요. 전쟁이 멈추길 바라며 위험 속에서 연주했던 그 첼리스트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글 쓰는 것과 기타 연주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작가는 글로, 음악가는 소리와 선율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도구로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글 쓰는 것과 기타 연주로, 슬픔 대신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아픈 친구들이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주일을마다 세 시간씩 기타도 치고 이야기도 하며 친구가 되어 주고 있어요. 잠깐이라도 아픈 것을 잊을 수 있다면, 그 가족은 물론 저한테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앞으로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또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할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옛날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타 연주를 해드리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뷰

제6회 동북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대상 이강산 인터뷰

* 그 때 무슨 내용으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했는지 기억나는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가 되겠다는 것과 전쟁이나 여러 휴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타연주자가 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때의 꿈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한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정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치학이란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그때의 꿈을 어느정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우선, 9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의 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제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때 자신있게 발표했던 경험이 지금 제가 하고자하는 공부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또 어떤 꿈이 있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정치가, 그러면서도 확실한 신념이 있는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영이의 꿈 1, 2, 3 (8회)

유 영 갈보리문화학교

안녕하십니까 ? 저는 One Two Three(1.2.3) International 주식회사
의 CEO 유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30년후에 저를 이렇게 부 르게
될거예요.

왜 회사이름이One Two Three냐구요? 하나. 둘, 셋 점점 쌓아간다는 뜻
이에요. 무엇을 쌓아가냐구요? 우선 사람들에게 신용을 쌓아가고 싶어요.
첫째는신용, 둘째는돈, 세째는서비스, 봉사정신이에요. 꿈만꾸는 데도 별
써 제 마음이 설레이네요.

저의 꿈은 전문 Total 마켓 경영인이랍니다. 요즘 타겟같은 회사처럼 소
비자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전문 마켓사업을 시작 하
고 싶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물건을 사느 라
피곤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리고 마켓안에 여기 저기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음료수 정도는 공짜로 제공 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만남의 장소로도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1.2.3사랑의 만남카페'라고 제목을 한 번 붙여봅니다. 컴퓨터 나 계속 발
전하는 전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들끼리 점점 만남이 적어 질것을 상
상해 본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OneTwoThree가 뭘 지알아요?"하면 99%의 사람들이
"아~네~알아요.참 편리한마켓이 예요." 라고 대답을 할거예요.

그리고 세계 여러곳에 체인을 많이 만들거예요. 지금은 국제화 시대 니까
요. 아주 큰 꿈이죠? 하지만 저의꿈은 이보다 훨씬 더 큼니다.저는 많은

돈을 벌어서 가장 잘 쓰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백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음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세상을 아직 재미있게 살아야 될 어린이들이 죽습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시골 마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학교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물도 가져다주고 싶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벌어서 가장 잘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꿈을 이루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선 현재생활에서는 돈을 잘 간수하는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설거지해서 엄마에게 일부를 받으면 작은 돈이라고 우습게 보지않고 잘 저축합니다. 은행에 나의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돈을 넣어보기도 하고 찾아 보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친구 두명이랑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다른 이웃의 잔디를 깎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깎을 때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고 재미있고 좋은 마음으로 땀을 흘리는 법을 생각했습니다. 작년겨울에는 또 눈을 치워 300불 넘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하이티를 도와주는데 썼습니다. 하이티를 위해 돈을 썼을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더욱 기뻐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큰꿈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30년후에 1.2.3 회사의 CEO 유영을 매일매일 거울에서 봅니다. 더욱 큰 꿈이 그려진 내 가슴을 만져보고 손을 흔들어봅니다. 비행기 아래 펼쳐질 아프리카의 희망과 웃음을 상상하며...

혹시 여러분 중에 여름에 잔디깎는 손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겨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눈을 치울 사람이 필요하세요? 저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732-123-1234입니다.



평화를 위한 한 걸음 (9회 대상)

이 주 영



안녕하세요.

이번 제 9회 동북부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된 이주영입니다.

Staten Island Tech에 재학중이구요, 9학년입니다.

제 이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부모님께서 주영이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기쁩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도 저에게는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에 하와이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에서 더 큰 무대에 서게 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외교관은 연설할 일도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많이 할텐데, 이번 대회를 통해 미리 경험을 하고 준비하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러한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는 데에 많은 분들이 수고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에 오셔서 길을 닦아 노으시고 저와 같이 꿈을 갖고 나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시는 어른들이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린 아이들의 꿈을 돕고 길을 열어주는 것

과 더불어 이민 사회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도전을 주는 롤 모델이 되고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진출했으면 좋겠고, 외교관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 또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9회 미동북부지역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대상 이주영 인터뷰

* 그 때 무슨 내용으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했는지 기억나는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가 되겠다는 것과 전쟁이나 여러 휴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타연주자가 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기 소개

제가 9학년 때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이란 주제로 외교관이 되어 이민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발표했었는데, 그때에는 외교관이란 직업에 매력을 느껴 정말 막연하게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 지금은 제 꿈을 좀 더 전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코넬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외교뿐만 아니라 법과 정부 관련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막연하게 생각은 했었지만 대회를 통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꿈이 그냥 직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 부모님과도 의견을 나누며 심도있게 내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한국어로 써야 해서 어휘력도 늘었고, 특히 관중 앞에서 원고를 외워서 마치 연설하듯이 발표를 해야 했기에 많은 준비를 해야 했었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떨렸지만 점점 준비하면서 제가 연설하는 것을 즐기고 설레어 하면서 대회를 기다린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꿈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해 나가야겠다는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후배들에게 한마디.

나의 꿈 말하기 대회는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생각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자신의 꿈이 있는 학생에게는 노력과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 계발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대회이기에 많은 후배 학생들이 자신을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기를 응원합니다.

도움을 주는 나무 (10회)

임 세 현 우리한국학교 8학년



꿈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던 여섯 살 때 저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좀 더 자라 아홉 살이 되면서 저는 영화배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아주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열네 살 소녀입니다.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나이가 되었고 지금 저의 꿈은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10개월 때 엄마와 아빠는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 믿으시고 35살에 미국회사로 옮기셨습니다.

아빠는 이곳에서 우리 가족을 살아남게 하시려고 회사가 곧 집이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시고 아는 사람도 없었던 부모님은 미국에 사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첫째라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딱 공부만 잘 시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크면서, 엄마는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계속 공부만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동생 해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키우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도 제게 꾸준히 하시는 말씀이 공부하라 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계속 공부하라고만 해서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넘쳐났지만 저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엄마가 무서워졌습니다.

엄마가 동생에게 젖을 먹이며 아파서 소리를 지르시면 내가 뛰어갔습니다.

걱정되어 “엄마 괜찮아?” 물어보면 엄마는 아픈 상태에서도 “빨리 가서 기탄문제 풀어!”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마음이 속상하고 아팠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린아이였지만 상처는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엄마는 내 동생 해준이를 키우면서 잘못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엄마와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 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런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 그 충격이 평생을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땐 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오로지 공부!’라는 말이 더 이상 지겹지만은 않습니다.

확실한 저의 꿈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체력을 다지기 위해 수영도 하고, 저 자신을 키워 줄 여러 일들을 하면서 제가 먼저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정신과 의사 임세현을 찾아주세요!



인터뷰

제10회 동북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대상 임세현 인터뷰

*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때가 생각나는지요?

오늘 오래간만에 나의 꿈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한 소감을 읽어 보았습니다.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시 읽어 보니 고등학교를 준비하던 중학생인 저는 자신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지금의 저는 새로운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라는 꿈에서는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의 꿈말하기 대회가 저의 정체성을 찾는 한 걸음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저는 고등학교를 작은 사립학교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작다보니 동양인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한인학생은 저 하나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만 사귀다 보니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친해질수록 잘 어울리지 못하는 때도 생겼었습니다.

풍부한 외국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한국사람이어서 저스스로가 속상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사람의 습성이 나타났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할때 저는 집에서처럼 한국말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점심에 엄마가 싸주시는 배나 감을 먹을때 친구들앞에서 창피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의 친구들은 두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저를 신기하게 보기 시작하였고 한국 과일을 빼앗아 먹기도 하였습니다.



*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어떤 영향을 준 것 같나요?

한국문화에 호기심을 가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사람인 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후 저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속상한 일을 겪을 때면 언어라는 것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과 저만의 마음의 위로가 될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었던 동화구연대회와 나의 꿈 말하기 대회는 저에게 자존감과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꾸준히 저의 꿈을 향해 걸어갈 것 입니다.



사랑의 야구 (11회)

박 세 웅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저는 운동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쯤 되면 제 꿈이 무엇인지 눈치 채셨죠? 맞습니다. 제 꿈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줄무늬 야구복을 입고, 야구모자를 멋지게 쓰고, 홈런을 시원하게 날리는 제 모습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제가 홈런을 날릴때, 구경하는 사람들의 커다란 환호성 소리가 지금 제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달리자! 그 홈으로 아자! 아자! 저는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어 많은 나라에 가서 운동경기를 하는 꿈도 꾸어봅니다. 야구를 함께 하며 여러 나라 친구도 사귀고, 그 친구들과 그 나라의 문화도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선교팀을 통해 그 곳 어린이들이 얼마나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아가는지 듣게 되었고, 적은 돈으로도 그들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여 돈도 좀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그 나라 어린이들에게 야구도 가르쳐주고, 다른 운동도 같이하며,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되면 어떻겠냐고 제게 물어보십니다. 아니면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야구선수가 목사님이나 의사처럼 힘든 사람들을 잘 돌봐 주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의사나 훌륭한



목사님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야구선수는 운동을 사랑하고, 체력도 튼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체력도 튼튼히 길러서 강한 훈련에도 잘 견디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야구를 통해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유명한 야구선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경기가 없는 날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저 야구선수 박세웅인데요. 오늘은 사랑의 야구를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함께 운동하며 몸을 부딪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씻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요. 그 어느 날, 나이 많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을 다시 찾아가 함께 그 때 그 ‘사랑의 야구’를 서로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다음에 ‘사랑의 야구팀’ 이 뉴스에 나오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야구선수 ‘박세웅’ 입니다.

한결 맛있는 요리로, 한결 행복한 세상을 요리할래요. (12회)

지 한 결 세종한국학교



저는 커서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3학년 때였어요.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계란, chocolate 우유, Mexican hot sauce가 있었어요.

그걸로 뭔가 만들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gas stove를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혼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가족 모두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요리의 기쁨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는 Balsamic chicken dish 예요.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한비까지 우리 가족은 chicken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닭가슴살로 어떻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balsamic chicken을 만들게 되었어요.

Balsamic chicken은 불 조절을 잘해야 해요.

Oven 안에서든 닭고기가 모두 똑같이 잘 익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건 촉촉하고 어떤 건 질겨요. 참 신기해요.

잘 익은 닭가슴살에 balsamic sauce를 더하면 아주 맛있는 balsamic chicken이 되요.



제일 맛있는 건 부모님과 동생에게 주고, 저는 제일 안 예쁜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행복했어요.

우리 엄마도 맨날 저랑 동생한테 좋은 걸 먼저 먹이시는데 나도 이제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는 오이무침 반찬도 만들 줄 알아요.

우리 가족이 즐겨 먹는 야채 반찬인데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실 때나, 손님이 오셔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실 때 저는 늘 엄마 옆에서 오이무침도 만들고, 다른 부엌일도 도와드려요.

그러면 엄마는 한결 일이 쉬워진다고 “우리 한결이 최고” 라고 말씀하세요.

요리는 참 재미있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칼과 불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잠시 다른 생각을 하면 꼭 다쳐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해요.

야채를 썰 때 빨리 많이 썰고 싶은 욕심에 서두르다 손을 벤 적도 있어요.

또 fry pan의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팔이 데인 적도 있어요.

처음엔 안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 쓰라리고 상처도 깊이 패였어요.

하지만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한 영광의 상처라 생각하고 꼭 참았어요.

저는 빵도 만들 수 있어요.

빵을 만들 때는 yeast가 꼭 필요해요.

Yeast는 빵을 부풀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yeast를 깜빡 잊고 넣지 않아서 빵이 하나도 안 부풀고 돌같이 딱딱하게 되어버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요리가 어렵다고 생

각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요리를 할 때, 어떤 맛, 어떤 모양의 음식이 나올지 상상하면 너무 행복하고 설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제가 요리사를 꿈꿀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첫째, 손과 몸을 깨끗이 씻고,

둘째, 불과 칼을 조심하고,

셋째, 부엌과 그릇, 도구들을 깨끗이 다루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Homeless soup kitchen 봉사를 하면서 음식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 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serving을 할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저는 이 봉사를 앞으로도 계속 할거예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요리로 우리 가족도 한결 행복하게 해주고,

이 세상도 한결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요리도 열심히 배워서,

한결 맛있는 요리로,

한결 행복한 세상을 요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요리사 지한결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동북부협의회 제 13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자 지한결 인터뷰

* 상 받던 당시의 소감은 어땠나요?

이전에 몇 번 참가해서 다른 상을 받긴 했지만 번번히 대상을 못 받아서 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참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터라 대상에서 제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믿을 수 없어서 너무 놀랐고 감사해서 눈물만 났습니다.

* 니의 꿈 말하기 대회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엔 전부 한국말로 제 생각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고 준비하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니 제 스스로에겐 큰 도전이 되었고 오히려 잘 몰랐던 나의 꿈을 발견하고는 그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현재 꿈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또 받은 상금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꿈을 위해 가고 싶은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하기때문에 부족한 공부를 위해 학원비에 보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가고 싶었던 버젠텍 하이스쿨에서 켈리네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한국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랜 기간 다니면서 가기 싫어 떼부린 적도 있었지만 즐겁고 좋은 기억도 많습니다. 잘 하진 못하지만 더듬거리면서 하는 대화속에서 한국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한국학교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말마다 힘들어 하는 저를 다독여 한국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 코리안 커뮤니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주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자라면서 점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성장해 훌륭한 어른이 되면 우리 한인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맛있는 요리로, 한결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리안어메리칸으로 후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영어처럼 잘 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국어를 (13회)

이 조 은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주 가족들과 함께 프린스턴 대학에 산책하러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계절마다 아름답고 멋진 캠퍼스를 구경하고 나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학교 앞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제게 가끔 물으셨습니다. "넌 이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이 학교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다닌 곳이야, 너도 커서 이 학교에 가면 집에서도 가깝고 좋을 텐데... " 라면서요.

그때마다 어려서 아무 생각 없이 "난 그렇게 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꿈이 무언지, 엄마가 사주시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하던 약속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가끔 산책하며 이 대학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는 그 옛날에 꿈을 꾸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꿈을 꾸었기에 이루어짐도 있었을 거야.’ 나도 꿈을 한번 꾸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는 언니와 함께 공부도 하고, 프린스턴 도서관에 있는 한국 책을 보고 꿈이 더 커졌습니다.

나의 꿈은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이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의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조은 교수...

언니에게 나의 꿈을 말했더니 언니는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은아 노력이 없이는 결과도 없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노력해" 언니의 말이 마음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계획도 짜고 노력합니다.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미국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k-pop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한국말을 조금씩 가르쳐 주고, 싸싸싸 놀이도 가르쳐 주곤 합니다.

친구들이 즐겁게 배우고 나와 함께 놀이하는 것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애들아! 너의 아들딸들이 이다음에 프린스턴에 오면 나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게 될 거야.'

혼자 가만히 웃어봅니다. 난 나의 꿈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서 예쁜 꽃이 활짝 핀 프린스턴 대학으로 산책을 즐기러 가고 싶습니다.

나의 꿈을 다시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동중부 지역의 꿈나무





1회

이 리디아 (필라델피아제일한국학교 8학년)
‘훌륭한 K-A 교육자가되기를’

2회

정은아
(필라한인천주교회한국학교 5학년)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야기 하고 싶어요’

3회

김이영
(필라한인천주교회한국학교 9학년)
‘인터넷에 제이름을 쳐 보세요’

4회

이유진
(필라한인연합교회연합한국학교 8학년)
‘나누어 가지는 꿈을 갖고 싶습니다’

5회

최예지 (랜스데일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6회

김예지(벅스카운티한국학교)
“최초의 한국계 여자 미 국무장관을 소개합니다.”



7회

해당사항없음

8회

전해림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꿈꾸는 약품 개발자’

9회

김다현 (다솜한국학교)
‘한국이 나은 JK Rowling’

10회

김유진 (남부뉴저지한국학교)
‘생명을 살리는 바이어 메디컬 엔지니어’

11회

김승규 (벅스카운티한국학교)
‘함께 살아가는 미국을 만드는 대통령’

12회

송윤아 (남부뉴저지한국학교)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앵커’

13회

김희진 (남부뉴저지한국학교)
‘학생들이여 행복하자! 훌륭한 학자를 꿈꾸며—’
**나의 꿈 말하기대회
홍보대사상**





인터넷에 제 이름을 쳐 보세요 (3회)

김 이 영 Elizabeth Kim

필라델피아한인천주교회한국학교 9학년



“제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을 다닐 수 있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독특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 하기 싫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을 기쁘게,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보면 대사관 직원도 되고, 외무부 장관도, 외교관도,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세상도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누어 가지는 꿈을 갖고 싶습니다. (4회)

이 유 진 Eugena Lee 필라한인연합교회연합한국학교 8학년

저는 꿈이란 작고 변하는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전 제가 어떤 별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꿈이지만 서로 나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14살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국말로 할머니와 대화하며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 드리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줍니다. 이렇듯 저는 제 꿈이자 보물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나눌 것 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의 조각들이 되어 서로 더 큰 행복을 나누게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가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5회)

최 예 지 랜스데일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줄게

"저는 하바드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예요" 제 주위를 돌아 보면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저처럼 이민을 온 많은 언니, 오빠들이 모두들 다른 문화와 언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쉽게 꿈을 포기해 버리는 것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저 같은환경 속에 있는 이민자 친구들을 도와주고 저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크로싱 라는 영화를 보고 불쌍한 북한 친구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를 선물 해주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힘은 없지만 그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줄게."

최초의 한국계 여자 미 국무장관을 소개합니다. (6회)

김 예 지 벅스카운티한국학교

최초의 한국계 여자 미 국무장관을 소개합니다. 김예지(벅스카운티 한국학교) 30년 뒤 미국 최초의 한국계 여자 미 국무장관에 오를 김예지,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한 신문에 세계적인 파워 우먼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흑인 최초로 미 국무장관이 된 콘돌리자 라이스의 매력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 분을 보면서 저 또한 최초의 한국계 여자 미 국무장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니 꼭 이를 것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특히 주인공 강석호 변호사가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장면에서 말한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부는 단지 대학만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진정한 공부란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이다.” 저도 대학만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루게 하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꿈인 국무장관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국무장관이 하는 일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평화롭게 돕는 일이며 나라들 사이에서 미국이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 국무장관이 되려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현 세계정세도 잘 알아야 하고, 연설도 잘해야 하며,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화합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국무장관이 되면 한국과 미국을 잘 이어주고 도움들 주고 싶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영어, 한국어 외에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언어들을 배울 계획입니다. 또 음악을 잘하는 국무장관이 되고 싶은데 다행히도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피아노를 잘 칩니다. 카네기 홀과 링컨 센터에서의 연주도 했었고 뉴저지 주 대표로 뽑혀서 전국 대회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또한 노래 부르기도 참 좋아하는데..... 제 노래를 한번 들어 보실래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 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여러분 저 잘 하죠? 음악은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아주기도 합니다. 콘돌리자 전 미 국무장관이 음악으로도 좋은 외교적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저 또한 음악을 열심히 해서 외교를 할 때 훌륭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가 되고 싶은 지도 알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도 알았으니까, 조금 씩 조금 씩 잘 준비해서 최초의 한국계 미 국무장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 봐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빅시스터 이재원 선생님 이재원(천주교 필라 한국학교) 저는 동생이 넷이나 되는 빅시스터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사서 이사를 나온 뒤로 우리 식구는 드디어 일곱으로 줄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가족이 친 할머니가 계신 시카고에서 외할머니 계신 펜실베이니아로 이사 왔을 땐, 식구가 열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식구 일곱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이모가 함께 살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로 온 후 1년 동안 우리 형제들은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떠들면 할머니는 “아이고~ 이 강아지들이 집을 이고 나가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집을 어떻게 이고 나갈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커서 우리 엄마처럼 선생님이 되려고 합니다. 동생들 숙제를 도와주면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 즐겁습니다. 엄마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무서운 선생님이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막내 재준이는 이제 제가 목욕을 시킵니다. 재준이가 엄마, 아빠, 누나, 형이라는 말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쁘고 정말 신기합니다. 시카고에 있었을 때, 제가 2학년과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셨

던 Mrs. Teipel은 잊을 수 없는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에도 Elizabeth, 무슨 일이 있니?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걱정된다. 아무 일 없지? 하고 이 메일을 보내 주셨습니다. 어린 저희들을 믿어주셨고, 종이 한 장을 주워도 크게 칭찬해 주셨고, 제 친구가 이사를 갔을 때는 학교 도서관에서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너는 Mrs. Teipel이 꼭 저의 착한 빅 시스터 같이 느껴집니다. 엄마가 저를 데리러 학교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때 막내 재준이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Mrs. Teipel이 의자를 펴주시면서 엄마를 앉게 하시던 친절할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선생님, 학생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인지, 아닌지 우리를 위해 많이 준비를 해 오신 선생님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웃고 있어도 무서워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선생님은 틀림없이 구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직 제가 14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모두 함께 갑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면 할머니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아이고~ 한 소대다, 한 소대!” 그래도 애들 클 때가 켈 좋은 때야~“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막내 재진이를 안고 제일 앞장 서 가시고 빅 시스터인 저와 켈 많이 다투는 재선이 그 다음, 듬직한 맏아들 재욱이가 그 다음, 그리고 저, 그리고 엄마가 재준이 때문에 늘 샘내고 잘 우는 재풍이 손을 잡고 제일 뒤에서 걸어가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땅콩 알러지가 있는 재욱이 때문에 밤중에 모두 후다닥 일어나 이머전시에 갈 때에도 재욱이 순서만 바뀌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순서대로 막 뛰어 갔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 맏아들 재욱이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재선 이와 재풍이 재준이 그 다음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서서 걸어가면서 우리 가족이 가는 길을 뒤에서 살필 겁니다. 선생님이 되어도 저는 언제나 학생들 뒤에서 걸어가면서 어떤 아이가 등이 굽었는지, 어떤 아이가 건들건들 걷는지도 살펴보고, 아이들 앞과 옆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항상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유난히 혼자 떨어져 걷는 아이를 잘 봐줬다가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는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약품 개발가 (8회)

전 해 림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해림아!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갑자기 물으시는 할머니께 “꿈? 나, 꿈 안 꾸었는데요.”라고 대답했더니, 할머니께서 크게 웃으시면서 “아니, 잠잘 때 꾸는 꿈 말고, 앞으로 네가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 말 이야”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한국말이 서툰 나는 “아! 그 꿈이요?”라고 대답하는 순간 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모든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 그 꿈이 크든 작든 꿈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나의 꿈 대회를 통해 제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니 제 마음 속에 큰 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명한 약품 개발가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

이제 겨우 14살 중학생이 무슨 큰 꿈을 꾸냐고요? 제 꿈이 다시 작은 꿈으로 바뀔 것이라고요? 저는 누구든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전한다면 아무리 큰 꿈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많은 약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치료약이 없는 병으로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꿈도 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데 치료가 안 되어 돌아가시는 엄마나 아빠들, 몸이 점점 굳어지고 마비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약품 개발가가 되어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싶어요. 제가 개발한 약을 먹고 아픈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 Alexander Fleming을 아시나요? 이차세계 대전 때 페니실린을 개발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노벨 상도 탔었죠. 저도 이 다음에 알렉산더 플레밍 같은 유명한 약품 개발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인 저로서는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요. 지금까지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공부입니다. 그중에서 수학과 생물학은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엔 아주 어려워서 다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재미있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도 재미있고요. 클럽활동과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답니다. 지난번에 한국 드라마 “브레인”에서 신경과 의사 한분이 플루트를 연주하며 사람 뇌가 기쁘고 행복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어요. 아픈 사람들 그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멋진 연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즈음은 피아노와 첼로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한글 또한 마찬가지로 열심히 배우고 있답니다. 제가 연구하여 개발한 약품이나 논문들을 한국어로 직접 번역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어려운 글을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아픈 한국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이기에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만 해도 정말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정말 갈 길이 멀고도 힘들지요. 수없이 많은 저와의 싸움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고칠 수 있는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 큰 꿈을 꼭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림 저 자신뿐 만 아니라 나의 꿈 대회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자고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화이팅!!



함께 살아가는 미국을 만드는 대통령 (11회)

김 승 규 벽스카운티한국학교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승규이고 8학년입니다. 우리 한국학교에서 최고 미남이지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첫 번째 한국인 대통령이 되기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8학년이 되어서 사회 역사 수업시간에 정치에 대해 프로젝트를 하고 토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는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정치는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너무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정당이 서로 마음을 열게 하고 싶습니다. 꼭 한 정당에 잡혀있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가장 좋은 것을 함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멀고 힘든 꿈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겨우 고등학교에 가게 되지만 지금 14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거고 수억만의 사람을 이끌고 열정 있게 연설을 하는 법도 배울 겁니다. 또박또박 빈틈없는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해 토론 모임에 들어갈 겁니다. 대학교에선 정치외교를 공부하며 좋은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배우고 고민할 겁니다. 그 후에 시장, 의원, 주지사, 장관을 하고 결국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갈 길이 멀지만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테러를 일으키는 나쁜 조직들을 해체시킬 겁니다. 그리고 국가 빚을 갚기 위해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드는 돈을 줄이고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받고 또한 은퇴 나이를 조금씩 더 높일 겁니다. 그리고 국경을 더 강하게 지키게 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면 신분을 위해 도와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것만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미국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면 산이 망가지고 산을 보호하려면 나무를 얻을 수 없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저는 대통령이 돼서 하는 일들을 모든 국민이 좋아할 수는 없다고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늘 국민이 필요한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일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시는 방법을 찾으며 겸손하게 지혜를 구할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심각하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그냥하는 말인 줄 아시고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꼭 보여드리고 결국엔 제가 웃겠습니다.



남을 돕는자로 사는 삶의 기쁨

김 소 진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7학년



저는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helper”. 그게 무슨 꿈이냐구요?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되는것보다 어떻게 사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꿈은 무엇이 되든,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랍니다.

제가 첼로를 연주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요요마같이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만약 제가 첼리스트가 되면 양로원과 같은 곳에 가서 연주하면서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혹 제가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어도 제 꿈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돕는 사람으로 사는 것”.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돈보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부자가 된 저는 돈이 없어 학교에 못가는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느날, 저는 ,tv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사는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무엇을 원하니?”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과 외로움만 있지요. 하지만, 제 미래는 신데렐라처럼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런 여자아이가

신데렐라처럼 되도록 돕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소원처럼 저 또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해서 남을 돕는 꿈을 실천하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신데렐라처럼 되는 것과 같은 거랍니다.

저는 그 꿈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어요. 수영과 배구도 열심히 해요.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첼로와 피아노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답니다. 또 하나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제가 한국어로 도울 일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직업을 갖게 될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산다면 제가 돕는 사람으로 잘 준비될 것이라는 거죠. 이다음에 제가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 그들을 도우며 살고 있을 거랍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을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유명한 영화배우라는 것과 할머니가 되어 아프리카에 사는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걸 선생님께 들어서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은 더 예쁜 사람! 그게 저의 별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돕는 자로 사는 나의 꿈, 이 꿈으로 오늘도 저는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행복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꿈을 찾아서...

김 소 진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더욱 책임감 있고 지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순수성을 잃어가는 아쉬움을 느끼지만 어떤 지혜가 생기고 그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화려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도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생각하면 현실 세계에 대해 잘 몰랐던 것과 내 꿈을 쉽게 달성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꿈은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13살 때 미래의 내 꿈에 대해 성실과 진지함으로 연설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내 꿈은 그 범위가 더 커진것도 같고 어린시절 나는 엄청 큰 꿈을 갖았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학 교육의 기회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나의 꿈은 다른 수준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국제적으로 경계를 넘어서 나는 내가 살고있는 미국 뿐만아니라 한국, 나의 모국에 사는 사람들,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나는 정치와 국제 관계에 관한 공부에 중점을 두고 학교 내에서는 정치 체제의 기초, 국가를 어느 정도 성공시키는 요인들, 민주주의의 힘,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여러 나라의 문화와 유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언어 능력;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교실에서의 배움을 현실 세계의 경험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 여름 방학에 저는 2016 OKFriends 라는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3차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한국,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나의 모국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한국인 이긴하지만, 우리가 살았던 나라들은 우리 모두를 너무 다른 나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만이 같았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나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문화에 익숙하고, 우리의 뿌리를 모른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였다는 사실은 모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므로 나는 '슬프지만 아름다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올 여름 나는 전 세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것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내 스스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42인들에 관한 책을 번역하고 편집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나는 여러 권의 위인전을 읽고 한국의 과거를 공부하며, 한국의 시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나의모국인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책을 읽고, 뉴스를 접하고, 내일의 도전에 대해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정치와 불평등에서 가난과 범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널리퍼져있는 문제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내가 취한 기회, 내가 추구하는 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순진한 꿈을 꾸었지만 내 꿈을 연설하기 위해 연단에 섰던 그 자랑스러운 순간을 나는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나의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시작했던 순간이었고 나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열세 살의 꿈이 여전히 나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음을 느끼며 일상 생활을 해 나갑니다. 가능한 작은 것이라도 나의 주위 사람들을 돕는 연민이 그 다음에, 더 많은 책임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될 것임을 생각하며 자신보다 큰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게 주신 선물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미래가
웃어요



학생들이여 행복하자! 훌륭한 학자를 꿈꾸며— (13회)

김 희 진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10학년 김희진입니다.

여러분, 저의 꿈은 몇년전 여름방학에 저의 모국인 대한민국을 다녀온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름방학때 있었던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해 여름은 무지 더웠지만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저의 모국을 방문하는 거고, 그 곳에서 사촌 언니, 오빠와 즐거운 시간을보낼 생각에 한참 들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의 기대는 바로 무너져 버렸지요. 대학생 언니는 취업 준비로 바빴고 고등학교 2학년인 오빠는 한달동안 3번이상 볼수가 없었어요. 그마저도 볼때마다 피곤에 지친 모습, 별로 행복한 얼굴 표정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전 가족이 가는 지방 여행도 오빠는 가지 못했어요. ‘나도 고등학생인데 저 오빠는 왜 저렇게 살지?’ 궁금해서 “큰 엄마, 왜 병찬 오빠는 우리랑 같이 안 가요?” “응...오빠는 학교 보충수업이 있어. 여기는 방학때도 공부하러 학교에 가야돼.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가지.” 전 궁금한게 많았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곳 미국에 와서도 그 사촌 오빠 모습, 무더운 여름, 거리에 교복을 입고 학교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내내 생각나 전 한국 교육에 관한 리서치를 해 보았어요.

눈부신 경제성장, 첨단기술의 발달, 생활의 질 향상...이런 긍정적인면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OECD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고 그 중 학생 자살률은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 13시간 공부, 5.5시간 수면. 나의 사촌 오빠처럼 학교가 끝난후, 거의 모든 학생들은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껏 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라마다 다른 교육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 제가 살고있는 미국이나, 저의 모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정말 활기차고 고등학교 시절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죠.

우선, 한국말을 더 열심히 배워야 겠어요. 나중에 한국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 한국과 미국, 세계 여러나라의 교육을 공부해서 가장 좋은 교육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영어와 한국어로 발표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연구하는 교육학자가 되는 게 바로 저의 꿈이랍니다.

저의 꿈 얘기를 하다보니 문득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평생을 나라의 독립과 교육 운동에 힘을 쓰셨잖아요. 제가 그 분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먼 훗날 우연히 신문이나 교육 잡지를 읽다가 저의 논문을 보게 되면 오늘 저, 김희진의 얘기를 들었던 적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가 진짜 해내겠네! 하며 씨익 웃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시간 지역의 꿈나무



1회

백승열 (톨리도한국학교 10학년)

‘한국을 알고 싶어요’

2회

조윤경 (디트로이트세종한국학교 7학년)

‘꿈을 심는 농부’

3회

장혜운

‘피아노와 함께하는 나의 한국사랑’

4회

김주연 (디트로이트세종학교 6학년)

‘뮤지컬 배우’

5회

해당사항없음

6회

김윤아 (디트로이트연합한국학교)

‘아빠의 발가락 닮아 가기’

7회

해당사항없음

8회

이상일 (세종한국학교)

‘챔피언의 꿈’

9회

이대니 (톨리도한국학교)

‘암치료제와 문화재를 맞바꾸다’

10회

홍예은 (세종학교)

‘제2의 Dr. Seuss’

11회

유수하 (디트로이트세종한국학교)

12회

김별 (앤아버한국학교)

‘다람이의 겨울준비’

13회

유온 (앤아버한국학교)

‘나의 꿈’



꿈을 심는 농부 (2회 대상)

조 윤 경 미시간디트로이트세종한글학교 7학년

여러분, 혹시 “초원농장” 상표의 제품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서 보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당연히 없죠? 이 제품들은 20년쯤 후에 제가 만들 것이며, 세계 어느 슈퍼마켓에서나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세계 최고의 유기농 제품들입니다.

저는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몸에 좋은 음식재료를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재료들을 읽어 보면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요즈음 어린 아이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식품과 불량 식품, 그리고 농약으로 오염된 음식들을 먹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병이 든 사람들을 의학으로 치료하려고 하지만, 저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쁜 음식으로 인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신선하고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품과 축산품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유기농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제가 생산한 “초원농장” 유기농 제품들을 먹고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지난 7년동안 저희 집 뒷 마당에서 토마토를 비롯한 여러가지의 야채와 과일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직접 땀을 흘려서 야채와 과일들을 키우고 돌볼 때 제가 참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호박꽃에서 슛술을 따서 수박꽃의 암술에 발랐더니 가을에 호박도 아니고 수박도 아닌 진한 썩색의 이상한 과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리고 어떤 맛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잘라서 먹어 보니, 맛은 호박과 수박의 중간 맛이었고, 씹으면 뭉클 뭉클하면서도 아삭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상한 과일의 이름을 호박멜론이라고 직접 지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밭에서 농사를 짓다보면 큰 교훈을 배웁니다. 작은 토마토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나서 수십 개의 먹음직스러운 토마토가 되듯이 저의 꿈도 지금은 아주 보잘 것 없는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큰 꿈나무가 되어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많은 열매들이 주렁 주렁 열릴 것입니다.

저는 20년 후에 세계 최고의 유기농 농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주며, 작은 일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계 미국시민으로 살아 가고 있지만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한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미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살아 갈 것입니다.





피아노와 함께 하는 나의 한국사랑 (3회)

장 혜 윤 Jang Hye Youn 우리한글학교 7학년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 되어서 피아노를 치기가 싫어져서 그만두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작곡가가 되고 싶어요. 한국인의 마음이 담긴 곡으로 한국인인 제가 연주를 하여 세상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한국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피아노가 지겨울때가 있더라도 연습을 많이 해야겠지요?”



뮤지컬 배우 (4회)

김 주 연 Julie Kim 디트로이트세종학교 6학년

저는 늘 생각해오던 꿈이 뮤지컬 배우예요. 저는 노래도 잘 부르고, 춤 추기도 좋아해서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뮤지컬 배우'로 꿈 꾸어 왔어요. 저는 미래에 제 꿈을 위하여 지난 가을부터 Troy Honor Choir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거울 속의 누군가를 만나고 인사하고 얘기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는데 어제는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오늘은 나를 혼 내신 과학 선생님과 내일 모래는 내 싸인을 받으려온 나의 미래의 fan과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꿈 꾸는 나의 미래엔 못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 아주 신이 난답니다.





아빠의 발가락 닳아 가기 (6회)

김 윤 아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저의 꿈은 세계 곳곳에 태권도에 매력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세 살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 지금은 태권도 3단 유단자가 되었습니다. 태권도 선생님이 되려면 내년에 있는 4단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한국어도 더욱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정직 해야 하며 저부터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부터 시작한 기초반 아이들 수업은 아버지의 지도 아래 제가 태권도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부터 아버지의 명투성이 발가락이 더 이상 창피해 하지 않습니다. 10년 후 쯤에는 제 발가락도 아버지처럼 뭉툭해지고 멍이 들어 있겠지요? 예쁜신을 못 신게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챔피언의 꿈 (8회)

이 상 일 세종한국학교

안녕하세요,저는 이상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이 루지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누구나 어렸을때는 미래에 대 한 꿈 을 한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은 무슨꿈을 가지고 있 습니까? 지금부터 저는 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의꿈은 테니스선수입니다. 재작년9월부터 테니스를 처음 배우기 시 작 하면서,하면할수록 점점 재미 있고 점점 잘하고 싶어집니다.특히, 잘 하는 학생하고 경기를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테니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더욱더 열심히 할것입니다. 그래서,US OPEN선수 권대회에 나 가서 World 챔피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코비치 테니스 선수를 아십니까? 이 선수는 US Open 챔피언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요코비치는 역대 메이저대 회 최장 결승전 5시간53분의 경기로 우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6시간을쉬지않고달리기를할수있습니까?여기서알 수 있듯이 테 니스는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기위해 서는 운동을 매 우 열심히 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달리기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렇 려면 힘이 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 에서 요코비치처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시합을많이하고좋은경험과나쁜경험을통해서저는점점더잘하 는 선수가 될 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 게 되면 테니스 코치가 되어서 어린이를 가르쳐 줄것입니다. 지금 저를 가르치는 코치선생 님처럼 아이들에게 항상 용기를 가득 줄 수 있는 코 치가 될 것입니다. 주위에서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십시오.저는 할수 있다고~ 파이팅!



나의 꿈 (8회)

유 온 앤아버한국학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열한살 남자아이, 유 온입니다.
앤아버 한국학교 중등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간단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오백원이 아니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1년전 5월 4일 미국 땅 오레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 걱정없던 아기로 살다가 2년 뒤 뉴저지로 이사왔습니다.
제가 두세살 때 저희 엄마말로는 텔레비전 2대, 리모컨, 시디플레이어, 라
디오 등 제 손에 닿은 기계들은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세 살이 좀 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말로는 고장난 세발 자전거의 작은 부품을 저혼자 고쳤다고 하
셨지요.

저는 제 할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합니다. 친할아버지요.
생긴 모습, 체질, 잠잘 때 손을 포개는 모습도 닮았다고 하지요.
할아버지는 기계와 전기를 잘 다루십니다. 아마도 제 DNA 속에 할아버지
의 장점이 들어가 있나봅니다.

이제 지금쯤이면 눈치채셨지요? 그렇습니다. 제 꿈은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만드는 것과 고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꿈이 정해졌으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어떤 분야의 엔지니어에게는 수학이 기본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5월에 있을 수학 시험에 집중하려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걸음 한걸음
가다보면 꿈에 가깝게 다가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잘 사는 세상, 편리한 세상,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 꼭 필
요한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가주 지역의 꿈나무





1회

강지아 (실리콘밸리한국학교 10학년)
'태평양 문화 다리 놓으며'

2회

정현진 (실리콘밸리한국학교 9학년)
'나의작은꿈을 이루기 위해'

3회

조성현
'행복으로의 길'

4회

조민수 (실리콘밸리한국학교 5학년)
'지구야, 아프지마!'

5회

강수정 (임마누엘장로교회한국학교)
'나는 움직이는 텔레비전'

6회

해당사항없음

7회

유미라 (산호세천주한국학교)
'사랑을 드리는 치과의사'



8회

해당사항없음

9회

한경휘 (실리콘밸리한국학교)
'21세기의 키케로를 꿈꾸며'

10회

조유진 (성김대건한국학교)
'표현의 여왕을 꿈꾸며'

1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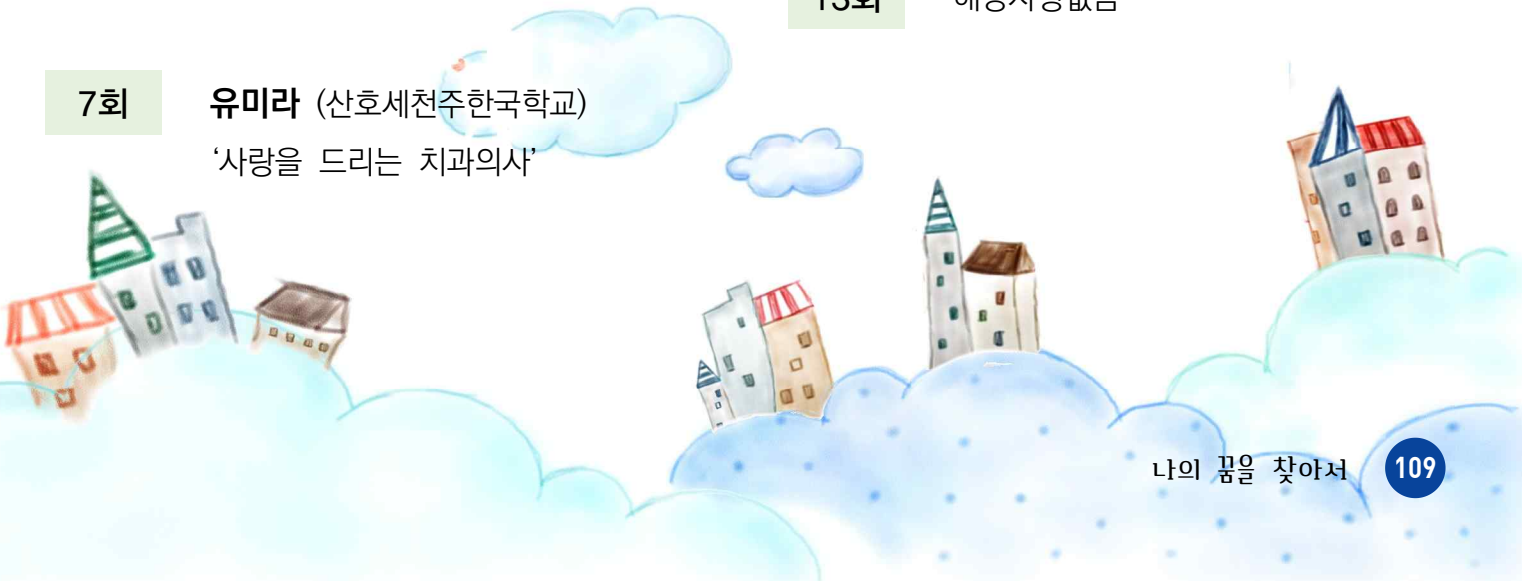
지예별 (상향한국학교)

12회

송혜윤 (실리콘밸리한국학교)
'새로운 것을 만드는 아나운서'

13회

해당사항없음





나는 움직이는 텔레비전 (5회)

강 수 정 임마누엘장로교회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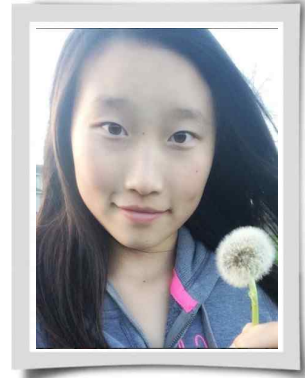
저의 꿈은 훌륭한 뮤지컬 배우가 되요 멋진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움직이는 텔레비전' 이라고 부르신답니다. 제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는 뮤지컬도 하고 싶지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열심히 배워서 한국의 문화를 멋지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에는 함께 장구를 배운 언니, 오빠들과 멋진 공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악기를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꼭 참고 배워서 멋진 공연을 했을 때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저는 이렇게 장구를 배워서 장구 공연을 했던 것처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멋진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뮤지컬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을 드리는 치과의사 (7회)

유 미 라 산호세천주교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라입니다. 저는 꿈이 많은 열 한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아직 한국에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이렇게 저의 꿈을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이 자주 바뀌곤 합니다. 이승기, 소녀시대를 보면 가수가 되고 싶고, 선덕여왕, 김탁구를 보면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되고 싶고, 저는 아주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꿈 중에서 저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어렸을 때 부터 치과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치과에서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걱정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를 어렸을 때 부터 모두 제 손으로 뽑았습니다. 이를 뽑는 것은 피가 나고 아프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신이 나고 아주 재미있는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더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픈 이를 튼튼하게 고쳐 드려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맛있는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배가 고프셨을까요?”바로, 6.25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6.25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6.25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6.25전쟁이 일본 카드 게임YU-GI- OH인 줄 알았습니다. 6.25 전쟁은 듣기만 해도 배고프고, 무섭고, 슬픈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힘든 전쟁을 겪으셨습니다.그런데,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려고 해도 “미라야, 이가 좋지 않아 ,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퍼서, 이를 튼튼하게 만드는 치과 의사가 되리라 결심했습니다 ! 이제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한국학교는 더욱 더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를 잘해야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치과 의사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려 주세요! 착하고 예쁘고 사랑을 드리는 치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 꿈을 꼭 이룰꺼예요! 감사합니다.



나의 꿈을 찾아서

유 미 라 산호세천주교한국학교

“나의 꿈을 찾아서...” 저는 지금까지 제 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했고 앞만 보고 나갔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정신 없이 바빠서 저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저의 꿈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6년전 저는 북가주 대표로 7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고 열심히 외우고 엄청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얻은 자신감이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산호세 천주교 한국학교에 13년동안 다니면서 백일장도 나가고, SAT II 한국어 시험에서 800점 만점도 받고,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5급을 받았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도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또래 친구들을 만나 외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세계 문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에 한국무용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곳에 공연도 하고 미국 댄스 대회에 친구와 참가하여 삼고무로 많은 시선을 끌었고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High School에는 한국 학생들이 없지만, Korea Club 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음악, 춤, 영화, 언어, 음식과 전통을 알려주고 매년 K-Pop춤을 가르치고 공연을 했습니다. SAT II 한국어 시험을 보고난 후, 한국학교에서 TA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쉽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한국학교에서 봉사를 하며 매년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골프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7년 동안 골프를 해 오면서 끝없는 시간을 연습과 시합에 투자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골프를 하면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짐을 얻었습니다. 골프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운동이라서 봉사활동이랑 같이 하는것이 어려웠지만, 두 활동을 꾸준히 해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제가 원하는 전공도 공부할 수 있고, 대학 골프팀 선수로 뛸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나의 꿈을 찾아서”...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나의 꿈을 찾으려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꿈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노력만 하면 어떤 꿈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공부는

Econom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입니다.



행복으로의 길 (3회)

조 성 현 Samuel Cho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9학년



“테니스는 제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고, 무엇보다도 행복과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저의 꿈과 이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저는 테니스 챔피언을 꿈꿉니다. US OPEN 챔피언 조성현!!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꿈의 끝이 아닙니다. 2035년, 저는 최고의 테니스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학교는 어린 꿈나무들을 실력있는 테니스 선수로, 다음 세대의 훌륭한 지도자로 키울 것입니다. 이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의 꿈입니다.”

지구야, 아프지마! (4회)

조 민 수 Jennifer Jo 실리콘밸리한국학교 5학년

저는 지구가 우리들이 마구 버리는 쓰레기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아픈 사람처럼 점점 열이 나는 병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환경 파수꾼이되어 아픈 지구를 고쳐주는 의사와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환경 파수꾼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환경을 지키고 싶어도 여러분이 음료수 캔을 땅에 버리고 나무를 꺾어버리고 강물을 더럽히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지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지켜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약속하면 지구는 점점 건강해질 것이에요. . 저도 어른이 되어서 꼭 환경 파수꾼이 되어 지구와 약속을 지키도록 할게요.

서북미 지역의 꿈나무



1회

유세연 (타코마제일한국학교 5학년)

‘가장 예쁜 최초의 여자 대통령’

2회

나강예 (한우리한국학교 5학년)

‘나는 자랑스런 Korean American 입니다’

3회

이재진

‘세계를 섬기는 세계이장’

4회

정지혜 (무궁화한국학교 11학년)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

5회

김아리 (무궁화한국학교)

‘나는야 사랑의 카운슬러’

6회

해당사항없음

7회

해당사항없음

8회

서강수 (금란한국학교)

‘김치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9회

전수혁 (타코마한국학교)

‘독도 지킴 홍보동이 전수혁’

10회

이은선 (토카한국학교)

‘세상을 웃음으로 치료하는 명 강 의사’

11회

조승현 (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

‘희망을 꺼내는 의사’

12회

해당사항없음

13회

박승찬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승찬이의 꿈’



세상을 섬기는 세계 이장 (3회)

이 재 진 타코마연합장로교회한글학교 5학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별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얼굴을 좀 봐 주세요, 자~알 생겼죠?

그런데 제 별명은 주로 먹는 거였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별명은 아빠랑 똑같이 생긴 “붕어빵”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데 엄마 닮은 붕어빵이 아니고 아빠 닮은 붕어빵이라 조금 싫었습니다.

다음 별명은 “떡판”입니다. 제 얼굴이 남들보다 조금, 아주 조금(?) 크다고 생긴 별명인데,

떡판이 뭐냐고요? 옛날 한국에서 떡을 만들 때 사용한 판이래요.

제 얼굴에 떡을 만들면 맛이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하기 싫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은 “동네 이장”입니다. 우리 동네 일들은 모르는 게 없다고 아빠가 지어주신 별명인데,

제가 집에 없으면 아빠는 “동네 이장 어디갔어?” 시키실 일이 있으면 “동네 이장 나오라고해!”

처음엔 동네 이장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알고보니 한국 시골마을마다 “동네 이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마을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래요.

저도 틈만 나면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얘기도하고 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집이 이사를 가는지 오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직업

은 뭔지, 심지어 거라지에 무슨 연장이 있는지까지 동네일은 모르는 게 없지요. 가끔은 아빠가 필요하신 연장을 빌려다 드리기도 합니다.

한번은 새로 이사 온 한국 아주머니가 계셔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말을 능청스럽게 잘해서 예쁘다며 맛있는 것도 싸주시고..., 지금은 우리 엄마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 배달도 잘합니다. 미국 사람들 한국음식 정말 좋아해요. 미역국, 잡채, 갈비, 김치...

저랑 조금만 친해지면 “너네 집에 김치 있니? 나 한국음식 정말 좋아하는데...”

은근히 한국음식 얘기를 하면 저는 엄마한테 졸라서 음식을 가지고 신나게 배달한답니다.

여름이면 차도 닦고, 잔디도 깎아 용돈도 벌어요. 저는 알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엄마는 그런 저를 영감이라고 놀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미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전쟁을 해서 많은 미국 군인들이 전사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좋고, 미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은 비록 자전거를 타고 우리 동네밖에 돌아다닐 수 없지만, 제가 크면 자동차, 기차,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세상 사람들의 힘든 얘기도 들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세계 이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국과 한국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아빠! 이제 저를 “동네 이장”이 아니라 “세계 이장, 세, 계, 이, 장”이라고 불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 (4회)

정 지 혜 Tammy Jihae Chung 무궁화한국학교 11학년

저는 지난 해 여름에 '2007년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 단원으로 선발되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정 중 명동에서 있었던 '종군위안부' 모금 행사를 하면서 민족의 슬픈 역사 속에서 꽃다운 젊음이 짓밟힌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생애를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저러왔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과 한국이 서로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의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저의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야 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로 한국과 미국을 바르게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는 한인 여성이 되겠습니다.

나는야, 사랑의 카운슬러 (5회)

김 아 리 무궁화한국학교

세상에 누군가가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카운슬러 라고도 생각합니다. 제 꿈은 사랑의 카운슬러 김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15살 여고생인 저는 주위의 많은 10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방황 하는 것을 봅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해가는 불안정한 저희 십대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읽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고 현명하게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를 만남으로써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벅차고 들떠온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가슴 설레는 사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매력이 있고 사랑 받을 만한 존재이며 당당 해야 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만 된다면 세상은 훨씬 더 건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김치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8회)

서 강 수 금란한국학교

저는 얼마전 부모님을 따라 음식점에 가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일본 음식은 값도 비싸고 수준이 높은 음식이지만, 한국 음식은 값도 싸고, 특히 김치는 냄새가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집에 가서도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김치를 아주 싫어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김치부침,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보쌈에 김치를 먹으면서, 언제부터인지 김치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김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김치는 첫째, 발효와 숙성을 통해서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이 풍부한 과학적인 식품이에요. 둘째, 김치는 대장암과 위암을 막아주는 항암 식품이에요. 셋째, 김치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비만도 예방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김치를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으로 되는 것도 막아주고, 스트레스를 없애는데도 아주 좋은 음식이죠. 이렇게 훌륭한 음식인 김치를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김치는 종류도 아주 다양해요. 김장김치, 물김치, 나박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실김치, 깍두기 등등, 제가 보니까, 김치는 모든 채소를 이용해서 자기 식성에 따라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채소가 세계적인 식품이듯이, 김치도 각나라의 맛과 특색에 맞춰서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 인기김치외교관이 되어서 우리의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김치를 여

러나라 음식과 조화를 시키겠어요. 가령 예를 들 자면, 에피타이저로 물김치를, 샐러드용으로 겉저리를 더 나가서 맥도 날드에 김치버거를 아이홉(IHOP)에 김치팬케익을, 데니스(Denny's) 에 김치오믈렛을 올리브가든에 김치파스타를, 그리고, 피자헛에 김치 피자를 만들도록 하여서,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식탁에 김치가 단골 메뉴로 올라가게 될 날 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상상해 보았어요? 할 수 있어요. 바로 저, 서.강.수.가 해 낼 거예요.



희망을 꺼내는 의사 (11회)

조 승 연 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



저는 6 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단순히 의사 선생님의 가운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되고 싶어 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작년 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왼쪽이 마비 되었습니다. 그것은 치매 증상 때문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녀올 때마다 웃어주시며 반겨주시던 할머니께서 한순간에 환자가 되셨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못 움직이셔서 할머니는 답답해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하루하루 힘들게 간병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뇌병들의 치료법을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6 학년 때 만났던 한 이상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점심때 제 친구들과 떡같이 붙어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저 건너편에 아주 촌스런 분홍색 옷을 입고 혼자 있는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혼자 앉아 있길래 같이 앉자고 말을 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춤을 추며 바비 인형의 노래를 크게 불러서 그냥 모른 척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아이는 뇌에 문제가 있다고 7 학년 내내 제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후 뇌 기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아이는 그 다른 점이 더 컸기 때문에 그한가지 이유로 무시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한 친구의 감정을 느꼈고, 뇌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어느 날 유명한 뇌 전문의사들을 검색해 봤는데, Ben Carson 이란 의사 선생님의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John Hopkins Children Center 에서 유명한 소아 신경외과 의사로 40년 동안 일하신 분입니다. 닥터 Carson 은 의사가 되기 전까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버스 기사, 철광공장, 고속도로 청소부 등으로 일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자신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노력만 하면 그 무엇이든지 해 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며 저도 닥터 Carson 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엔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마음 깊이 덮어 났는데 제가 친구가 되어, 그 희망을 다시 꺼내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두 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의사말입니다. 매일매일 이 마음과 나의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면 , 닥터 Carson 의 말처럼 꼭 이룰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을 꺼내주는 닥터 조! 기대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승찬이의 꿈 (13회)

박 승 찬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여울반



저는 배드민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교회에서 아빠와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배드민턴 클럽에서 레슨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어리고 덩치도 작아서 배드민턴을 하기에 매우 불리하지만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멋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배드민턴 선수가 되고 싶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저는 배드민턴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배드민턴게임을 하다 보면 질까봐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이겼을 때는 하늘을 날 듯이 기쁩니다. 세계에서 배드민턴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째, 저는 배드민턴을 계속 쫓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많이 자라나깐요. 저의 엄마와 아빠는 제 키가 185센치미터까지 크기를 바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엄마와 아빠는 키가 작은 편이어서 제가 부모님을 닮아 키가 많이 크지않을까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계속하면 엄마와 아빠의 바램인 185센치미터까지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 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아

빠가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와 아빠에게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마와 아빠가 저를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빠가 돈을 벌고 계시지만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커서 엄마와 아빠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배드민턴 선수 이 용대형에 대해 아빠가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이 형은 배드민턴을 잘 쳐서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이 형의 사진도 보고 게임도 봤는데 정말 잘 생기고 게임도 정말 잘 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커서 이 형처럼 세계 최고의 배드민턴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배드민턴을 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 지역의 꿈나무





1회

해당사항없음

2회

이한나 (워싱턴영생한글학교 7학년)
'할아버지! 김치 하세요'

3회

오한빛
'행복을 만드는 요리사'

4회

김민송 (워싱턴통합한인학교MD캠퍼스 6학년)
'나의 꿈 나의 지구'

5회

윤지희 (하상한국학교)
'꿈꾸는 월드 스타'

6회

해당사항없음

7회

다이어나 해어 (중앙한국학교)
'가슴에 하나로 품은 한국과 미국'

8회

옥주은 (열린문한국학교)
'동물들의 행복은 나의행복'

9회

김준형 (워싱턴통합한국학교)
'평화의 놀이 동산'

10회

서나영 (워싱턴통합학교)
'나의 꿈'

11회

추미서 (하상한국학교)

12회

구채원 (열린문한국학교)
'어린이들의 하얀천사'

13회

한지희 (중앙한국학교)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하고 싶어요'



가슴에 하나로 품은 한국과 미국 (7회 금상 수상)

다이애나 헤어 중양한국학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양 한국학교의 다이애나 상미 헤어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수영 선수도 되고 싶고, 아나운서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제일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자원 봉사일로 모교 초등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함께 노래도 부르고, 알록달록 색종이로 만들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줍니다. 저는 아이들과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고 재미있습니다. 가끔, 힘들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언니,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 봐요!” 하며 저를 안아 주면, 힘들었던 시간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음주를 기다립니다.

저에게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삐뚤 삐뚤 색종이 의자인데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1학년 선생님, 조금은 엄격하셨지만 학생들의 책임감을 알게 해주신 3학년 선생님, 제가 한국아이인걸 아시고 항상 “안녕! 앉아” 라고 말씀하셨던 5학년 선생님, 그리고 나 보단 남을 더 배려하라고 가르쳐주신 우리 한국어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이 가르침들을 잊지않고, 저 또한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 주고, 학생들의 책임감을 알게 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남을 더 배려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끔, “너 반반이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만, 크게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는 반반이 아닌 ‘100%의 한국인, 100%의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심어주시고, 또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와 동생이 한국을 바로 배울수 있도록 저희들을 데리고 2년에 한번씩 한국 방문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니셨던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다니고, 태권도도 배웁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시골이라 오일장이 서는데, 이날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장날 구경에 나섭니다. 귀를 막고 ‘뽕’ 하며 터지는 뽕튀기와 꿀떡도 사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를 ‘호호’ 불어가며 배터지게 먹습니다. 신나게 장날 구경을 하다가, 해가 저물때쯤 논둑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저는 참 많은것을 보고 배웁니다. 책으로만 한국을 배우지 말고, 직접 한국을 체험한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한국과 미국의 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이 두 나라-저의 조국인 한국과 미국에 꼭 필요하고 이 두 나라를 대표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요리사 (3회)

오 한 빛 Patricia J. Oh 워싱턴영생장로교회 5학년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무슨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리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 하면 그것만큼 훌륭하고 멋진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다”라는 이 말을 명심하는 요리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된장이나 두부요리를 국제적인 음식으로 만드는데 제가 큰 역할을 할 거예요.”

나의 꿈 나의 지구 (4회)

김민송 Ellan Kim 워싱턴통합한인학교MD캠퍼스 6학년

우리는 좋은 글을 통해 우리 삶의 지혜, 마음의 평화,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글의 겉모습은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글은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환경분야에 관한 공부도 하고 경험을 넓힌 뒤에 제 글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글을 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조그마한 변화가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작가가 되어 안중근의사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수 있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이 지구가 더 평화롭고 이해심 많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꿈꾸는 월드스타 (5회)

윤 지 희 하상한국학교

저는 노래를 잘 못부르지만 노래 부르는 것과 춤추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이왕 가수가 되는 꿈을 가졌으니 더 큰 꿈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월드스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싸인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드스타가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을 돕는 일이 참 좋습니다.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되는 친구들이 낯선 환경에 힘들어 할 때 한국어도 영어도 할 수 있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되고 싶은 월드스타가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산다면 전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아빠가 그러십니다. "최고가 되려고 너무 쓰지 마라 너가 최선을 다 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저는 비록 노래를 잘 하지 못하지만 저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의 행복은 나의 행복! (8회)

옥 주 은 열린문한국학교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부터 정말 많은 애완동물을 키워봤습니다. 아마도 애완동물 가게에 있는 동물들 중 뱀만 빼고 다 키워본거 같아요. 사실, 저는 뱀도 예뻐서 키워보고 싶은데, 엄마가 밧없이 기어다니는 동물들 은 징글 징글하다고 너무 싫어하셔서 아직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엄마 집에 살아서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제 집이 생기면 뱀도 꼭 키워볼 생각이예요.

지금저는루나라는시츨강아지와알을낳지않고치어를낳는거피라 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물고기는 처음엔 5마리였는데 이제는 50 마리나 되었다. 루나는 아침 저녁으로 산책시키는데 산책 시킨후 발을 씻기는 일이 귀찮을 때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루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비오는 날에 지렁이가 왜 땅밖으로 나오는 줄 아세요?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쉬는데 비가오면 땅속에 물이 들어가서숨 을 쉴 수 없기때문에 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해 가 뜨면 땅속에 들어가지 못한 지렁이들은 말라죽어요. 그래서 저는 비 온후 길을 잃고 아스팔트위에 있는지렁이를 보면 손으로 잡아 흙으 로 옮겨주면서 “오래 오래 잘 살아라” 이야기해 주곤 하지요. 한번은 우리집에 들어온 쥐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집에서키우자고 했다가 혼난 적도 있어요. 저희 집에는 퐁파리가 들어와도 죽이지 못 해요. 이유는 아시겠죠? 네, 바로 저 때문이에요. 퐁파리도 살아야지요. 동물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저의 꿈,



아시겠죠? 저는 수의사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아프지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수의사는 저의 첫번째 꿈을 위한 두번째 꿈입니다. 그 럼 이제 저의 첫번째 꿈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어느날 동물방송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세상에버려진 동물들이 너무 많은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진 동물들도 정말 많구요. 그렇게 버려진 동물들은 힘들게 살거나 동물 보호소에 보내지고 있었는데 더 놀란것은, 동물 보호소 에 보내진 동물들도 30일안에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었어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물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 때 마음이 너무 아파 울면서 결심했어요. 아주 아주 큰 동물 보호 소를 차려 이세상에 있는 불쌍한 동물들을 제가다 지켜주기루요. 우리 강아지루나가 병원을 갈때나 루나 물건을 살때면 엄마가 가끔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휴~ 개 한 마리 키우는게 애 한 명 키우는거 보다 돈이 더 들어가네...”엄마의 이말씀을 들으면 엄마는 루나를 사랑 하지 않는거 같아 많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 덕분에 동물들을 지켜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되었지요. 그래서 저의 첫번째 꿈인 동물들과 함께 살 동물 보호소를 차리기 위해 두번째꿈인 수의사도 될꺼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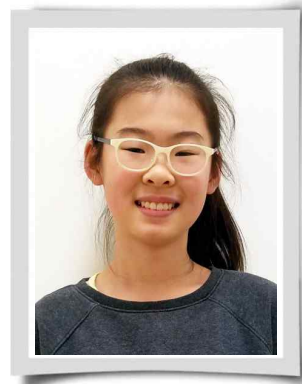
제가 수의사가 되면 제 동물보호소의 아픈 동물들은 제가 다 치료해 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한국학교에서 배운 속담, ‘뽕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맞지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궁금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제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래봐도 애완동물 척척박사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동물 보호소와 동물 병원을 차리면 버려진 동물들이나 아픈 동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데리고 오세요. 제가 정성과 사랑으로 보호하며 치료해 드릴게요. 참, 오늘 제 싸인을 받으면 나중에 동물 병원비를 50%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잊지마세요, 행복 동물 보호소와 행복 동물병원!!

저 의 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하고 싶어요. (13회)

한 지 희 중앙한국학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윌리엄 A 워드 라는 사람이 말했었는데, 다행히도 저에게는 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았고 계속 바뀌어 왔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소중한 꿈은 바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읽은 영어 책은 Dr. Seuss 의 Green eggs and ham 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잘 읽지 못했고, 발음도 조금 서툴렀지만 내용은 잘 꼬집어 내었습니다. 몬난이 동물이 녹색 계란 먹는 것을 좋아해서 동굴안에서도 먹고, 기차 위에서도 먹고, 언제나 이상한 곳에서 먹는 내용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저는 완전히 몰입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짧은 순간 동안 저는 나무 위에 올라 가고, 고양이와도 어울리고, 온 세상을 여행한 듯 싶었어요.

좀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책의 길이도 길어 지면서 책의 내용도 더 흥미 진진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여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과 느낌들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다양한 책을 통해서 저는 무서운 동굴도 들어가 보고, 구름 나라로 올라가서 솜사탕을 먹으면서 놀기도 하고, 요술카펫을 타면서 온세상을 내려다 보기도 하고, 심지어 짝사



랑을 경험해 보기도 했답니다. 책속의 이야기들 덕분에 신기한 모험을 많이 할 수 있었던거지요.

처음에 저는 시간있을 때만 책을 읽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밤 늦게 까지 책을 읽는 습관으로 변하고, 더 나아가 이런 재미있는 책들을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책을 읽다 보니, 저만의 이야기를 머리속에서 그리기 시작하고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글로 쓰는 일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 학교에서 시장 놀이를 했는데 각자 팔 물건을 만들어 오라기에, 저는 짧은 책을 만들어 팔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의외로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고 제게 많이 물어와서 저도 신나게 뒤에 내용을 더 만들어 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번은 초등학교 5학년이였을때 친구 두명과 함께 Scholastic 에서 주최하는 동화책 쓰기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삽화를 그리고 의견을 나누면서 책을 만드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작가가 되고 싶은 저의 꿈이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만의 마법을 써서 여러 사람들을 세상 곳곳에 데려다 주고 말로는 설명할수 없는 감동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들고 신비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습니다. 글로 신비한 곳과 희안한 모험을 묘사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느꼈던 책의 마법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상상력이 더 커지고, 세상을 더 잘 이해할수있는 눈을 갖을 수 있도록 좋은 글을 쓰겠습니다.

제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책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또 작

가는 많이 보고 경험해 봐야 한다고 하니 되도록 여행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후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Dr. Seuss처럼 작가인 저를 기념하는 날이 생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혹시 책방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제 이름을 보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지희 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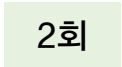
중남부 지역의 꿈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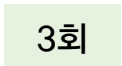
1회

해당사항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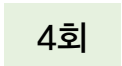
2회

해당사항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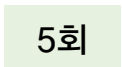
3회

해당사항없음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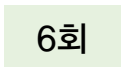
해당사항없음



5회

구명우 (렉싱턴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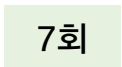
‘역사의 실마리를 찾는 고고학자’



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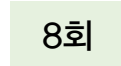
윤영찬 (렉싱턴한국학교)

‘세계 곳곳에 웃음 선물을 주는 꿈을 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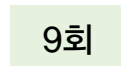
7회

해당사항없음



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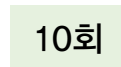
해당사항없음



9회

최현성 (셋별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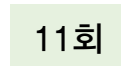
‘희망의 엔지니어’



10회

강지우 (블루밍턴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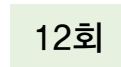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11회

이윤재 (셋별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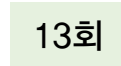
‘함께 꿈을 꾸는 축구선수’



12회

이시은 (렉싱턴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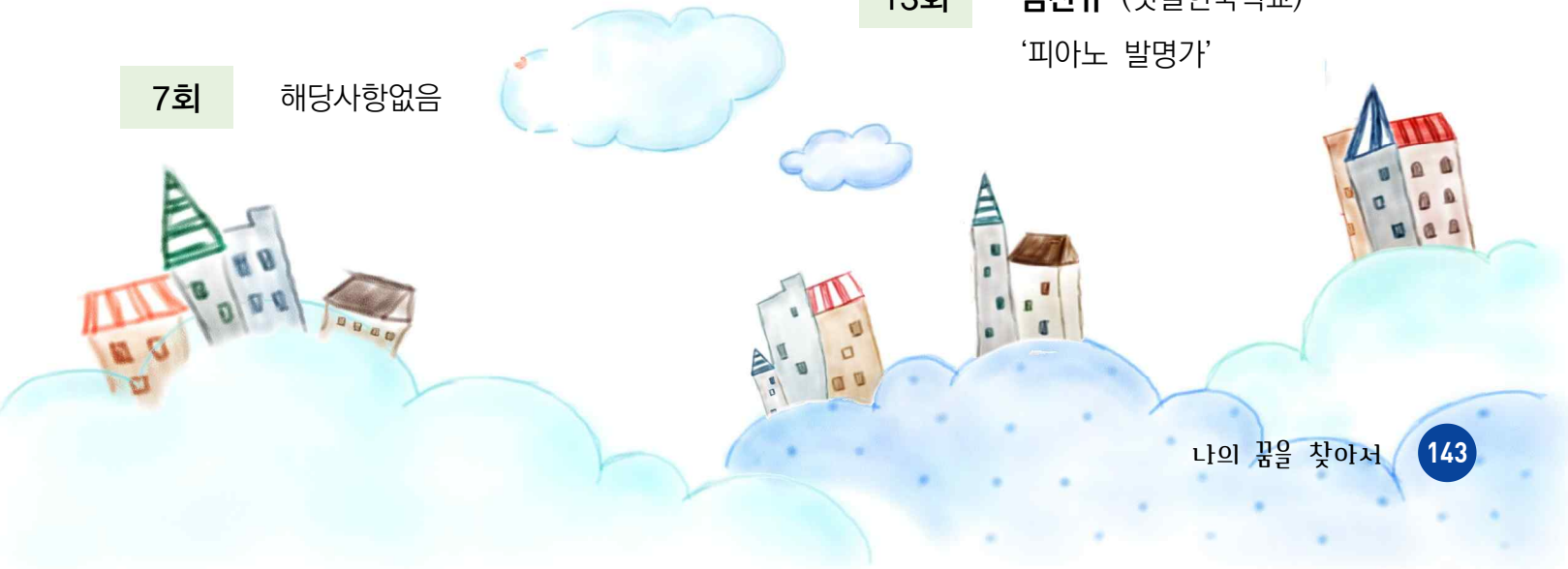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13회

김찬규 (셋별한국학교)

‘피아노 발명가’





역사의 실마리를 찾는 고고학자 (5회)

구 명 우 렉싱턴한국학교

저는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왜 하필 고고학자가 되고 싶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째로, 저는 찾기를 좋아합니다.

퍼즐 맞추기, 레고 블럭, 부서진 장난감까지 잃어버린 물건이나 조각들을 잘 찾아 마칩니다.

둘째로, 고고 학자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저는 책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셋째로, 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고고학에는 제가 좋아하는 전쟁 이야기도 있고, 가족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멋진 고고학자가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건강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도 열심히 하고, 축구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어요. 우리 가족은 등산을 좋아하는데 요즘 저는 산에 갈 때마다 혹시 유물이나 화석이 있나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훌륭한 고고학자가 되어서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 드릴게요.

세계 곳곳에 웃음 선물을 주는 꿈을 꾸며… (6회)

윤 영 찬 렉싱턴한국학교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개그맨이 꿈이냐고요? 틀리셨습니다. “아이고” 하시며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건강을 나누어 주어 웃음을 되찾게 하는 약 학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버지가 ‘뇌 색전증’으로 판정을받으셨지만 다행히 아버지의 막힌 혈관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 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우리 집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과학을 좋아하는 제가 약 학자가 되어 제가 받은 웃음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에 흰머리를 뽑아 드리면서 어머니를 위해 흰 머리에 좋은 약을 개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 꼭 필요한 약이 개발 되어 있어서 기뻐하며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약을 부작용이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선물한 웃음이 세계 곳곳에서 넘쳐나는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제 삶을 충실히 살아 가겠습니다.



함께 꿈을 꾸는 축구선수 (11회)

이 윤 재 셋별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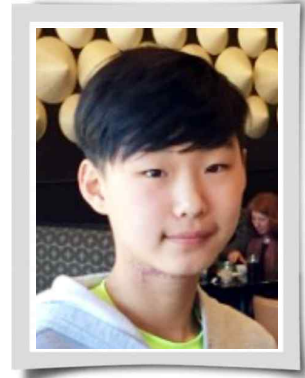
저의 꿈은 함께 꿈을 꾸는 축구선수입니다. 축구선수가 되어 프리미어리그에서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골 세리머니를 하는 제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부터 가슴이 쿵쿵 뛵니다. 다섯 살 때 엄마 손에 이끌려 YMCA 팀에서 처음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공에 낙서도 하고 열심히 뛰어야 할 때는 잔디밭 풀을 뜯고 해서, 엄마한테 돈이 좀 아까운 거 같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축구가 재밌어지면서 열심히 하게 되어 팀의 메인 공격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정말로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트래블팀 들어가서도 잘하겠지 하는 맘으로 들어간 팀에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밀려나고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없어졌습니다. 아빠는 이런 저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매일 슈팅 연습과 드리블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선수들의 플레이를 분석하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또 축구는 혼자하는 운동이 아니라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게임이나 연습을 할 때 심장이 터질 만큼 열심히 뛰었고, 팀이 지고 있으면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 년 반 동안 수비수로 최선을 다하는 저에게 코치는 다친친구 대신 공격수로 뛰게 해주었습니다.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뛰었고 친구가 패스해준 공을 제가 뺏아서 골인이 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제 이름과 팀이름을 크게 불러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트래블팀에서 열심히 연습을하고 시합에 나가고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전체 그림도 그려봅니다. 물론 실 때는 저의 롤 모델인 박지성 선수가 나오는 피파 축구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게임 많이 한다고 엄마한테 많이 혼나 기도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만든 축구센터 앞에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은퇴 후에 축구 재단을 만들어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박지성 선수처럼 재단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주시는 용돈을 모아서,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공을 살 수 없는 어려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끝으로 굿은 날씨에도 먼 곳까지 운전해주시고 늘 격려해주시는 엄마, 아빠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엄마한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골을 넣으면, 그 공에 사인을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발명가 (13회)

김 찬 규 셋별한국학교



BA BA BA BAMM~~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곡은 베토벤의 5번 ‘운명 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피아노 공명판에 막대기를 대고 입에 물어서 그 진동을 턱으로 느꼈다고 해요. 피아노의 울림으로 소리를 느껴가며 청각장애를 가진 베토벤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아름답고, 멋진 곡들을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한 저는 특히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울할 때, 신나는 일이 있을 때 피아노를 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부모님과 동생도 즐거워했어요.

무엇보다 피아노 자체에 호기심이 많아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기 위해 건반 하나하나를 ‘캉캉’ 두들겨보기도 하고 페달을 들었다 놔다 해서 엄마한테 ‘피아노 다 부시겠다’고 야단도 들었어요.

조율하러 온 테크니션이 피아노 뚜껑을 열고 그 속의 줄을 하나씩 체크하며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때는 저도 숨을 딱 멈췄어요.

피아노 속은 정말 신기했고 해머가 줄을 탁 치면 그 진동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처음 피아노를 발명한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자원봉사하시는 장애아იდ들 ‘음악치료반’에 같이 가서 아이들과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청각, 시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큰 스피커에 손바닥을 갖다대고 음을 들으며 춤을 추었고, 밝은 색깔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탬버린을 쳤어요.

피아노가 어디 있나 둘러보다가 피아노 앞에 오랫동안 서 있는 아이를 보았어요. 피아노 건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건반을 누르고 바로 바닥에 귀를 대보던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제까지 머릿속에 뿌옇게 맴돌던 제 꿈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피아노를 만드는 ‘피아노 발명가’가 되는 것이예요.

여러분, 청각 장애인들은 어떤 음이 연주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진동을 느낍니다.

높은음은 진동이 적고, 낮은음은 진동이 더 크지요. 또 건반을 누를 때 색깔로도 어떤 음이 연주되는지 알게 됩니다. 빨간색은 높은 음, 파란색은 낮은 음이에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피아노와 관련된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물론 피아노 조율사가 저희집에 더 자주 와서 엄마께 죄송하기도 해요. 비록 장애가 있어도, 누구든지 아름다운 천국의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피아노를 발명하는 제 꿈이 이루어지면, 그때 ‘음악치료반’에 있는 장애 아이들과 함께 멋진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서부 지역의 꿈나무



1회

김정규 (나일스한국학교 5학년)

‘훌륭한 변호사를 꿈꾸며’

2회

홍진기 (미네소다대건한국학교 10학년)

‘사인해 드릴게요’

3회

오준범

‘준범 나이스샷’

4회

고이슬

5회

노유진 (시카고무궁화한국학교)

‘오늘 우리집에 외할머니가 오셨습니다.’

6회

이예원 (복음한국학교)

‘함께 나누는 사랑’

7회

해당사항없음

8회

해당사항없음

9회

해당사항없음

10회

이민서 (그레이스무궁화한국학교)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11회

김유진 (그레이스무궁화한국학교)

‘나의 꿈’

12회

이혜령 (하상한국학교)

‘내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유’

13회

이데레사 (하상한국학교)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오늘 우리 집에 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5회)

노 유 진 시카고무궁화한국학교

외할머니가 저에게 "우리 유진이는 커서 무엇이 달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할머니...저는 커서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작가를 하면 돈을 많이 못 판다시며 다른 직업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제 꿈인 작가가 되면 재미있는 공상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공상 소설을 쓰는 동안 고생물 학자도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가 커서 작가가 되면 나처럼 책 모으기 를 좋아하는 아이들 책장에 내가 쓴 책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도 많이 읽고 글쓰는 것도 많이 하고 공룡 공부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작가, 유명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또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돈도 많이 벌어서 굶어 죽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꿈 (11회)

김 윤 진 그레이스무궁화한국학교

저는 보고 싶은 곳도 많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결혼식이나 가족사진을 찍는 사진작가가 아니라, National Geographic 같은 데서 일하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National Geographic은 우리 지구에 있는 자연과 사람들을 찍고 다큐멘터리와 잡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National Geographic은 신기한 곳에 대해서 멋진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정말로 멋진 곳을 가 보고 싶습니다. Himalaya에 있는 높은 산, 요리단에 있는 사막, 호주에 있는 산호섬, 모두 다 가보고 싶습니다. 사진작가가 되면, 이런 신기한 곳에 다 가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가봤던 곳도 발견하고 싶습니다. 위험한 곳도 가보고, 정말로 멋진 데를 탐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구의 정말 아름다운 곳을 가보고 그런 아름다운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Hawaii에있는 화산, Brazil에있는 열대우림도, 다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한 섬나라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있나, Amazon 에있는 부족들의 인생 어떻게 다르나, 다 궁금합니다. 이 지구에 사는 인종들과 문화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호기심 없이 살수 있을까요? 사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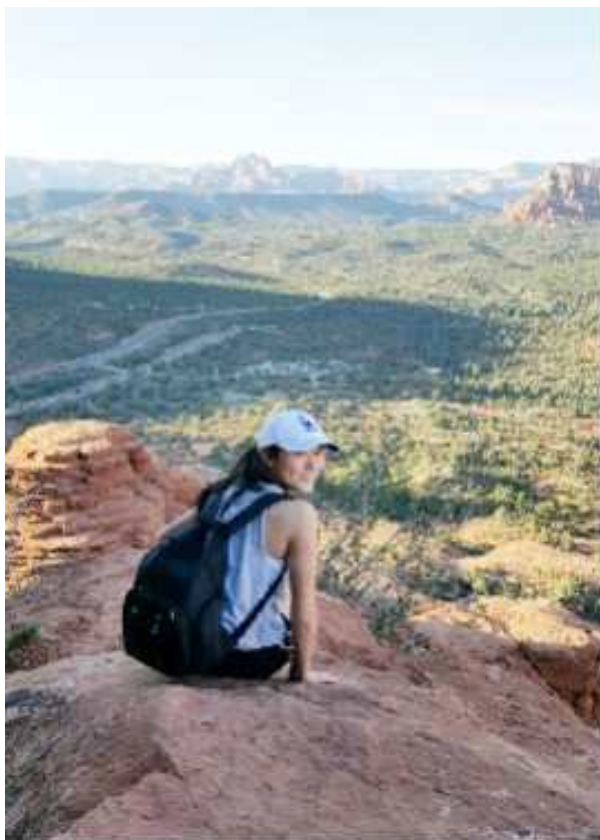
생각을 주고 싶습니다. 다른 예술들처럼, 사진은 우리 세상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역사수업시간에 다른 나라들에대한 것들을 배울때, 저의 선생님은 자주 우리 한테 사진을 보여 주십니다. 말만 하고 종이에다가 써 놓은 것을 읽는것보다, 우리 눈으로 그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볼때, 진짜로 그 나라를 느낍니다. 생긴건만 아니라, 그곳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있는지 배울수 있습니다. 좀 얼마전에, 우리가 브라질에있는 Rio De Janeiro라고 한 도시에 대해 배웠습니다. Rio De Janeiro는 대개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Rio는 한쪽에 바다가 있고, 다른 한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면적이 작은 도시입니다. 처음에는, 멋진 바다와 불이랑 다 사진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거기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Rio는 대개 부유한 도시지만, 산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들은 favela라고 합니다. Rio에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산 외에 집들이 하나하나 쌓여있는 걸 봤습니다. 또 한 사진에는, 어떤 늙은 아줌마가 거기 높은 집에서 빨래를 하고있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너무 불쌍한 표정 있었습니다. 이 두 사진이 favela에 생활양식을 다 보여 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Rio가 항상 이런 바다옆 에있는 부자 도시인지 알았는데, 이사진들을 본 다음에, 제 생각들은 확 바꿨습니다. 사진은 진짜로 천가지 단어보다 가치가 더 많은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JR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JR는 프랑스의 사진작가입니다. JR는 사진을 통해서 Israel과 Palestine 전쟁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영향을 줬습니다. JR이 Israel에서 Israel 사람들에게 웃긴 표정을 지으라고 말했고, 그 사람의 표정을 찍었습니다. Palestine 사람한테도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Israel에 큰

건물이랑 집벽에다가 부쳤습니다. 그래서 Israel에 살고있던 Israel 사람들과 Palestine 사람들은 사진을보면서 “와,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하고 생각 했습니다. JR는 지구를 여행해서 이런 신기한 사람들 얼굴 사진을 기차 바깥에도 부치고, 쪼끔한 마을에 집지붕들에도 부치고, 큰 계단에도 부쳤습니다. 저는 JR처럼 이런 단순한 사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영향 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진작가가 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일들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다생물에 대한 사진을 찍어야 된다면, 바다 깊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야한 일이 있으면, 어떤 나라로 가서 가난한사람들을 찍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진을 통해서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찾아서 우리 세상에 많은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70억이 넘는데, 각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다 들어줘야지요? 우리 세상은 돈이랑 힘 많은 사람의 목소리는 당연하게 듣지만, 작은 목소리는 많이 안 들어줍니다. 사진들은 책이나 시 처럼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과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사진을볼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 인생은 어떻게 다를수있는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런 감정을 전할수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을 보고있는 사람의 눈을 진짜로 뜨게 만들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 고통이 많은 이야기나, 즐거움이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이야기들 안엔 다 경험 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싶습니다. 어떤사람 들은 사진이 세상의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진이 창만 아니라, 인생의 거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처럼 새로운 눈으로 우리 세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만 아니라, 그걸 발견 할 때 거울처럼 우리 스스로와 우리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진을 볼 때, 보구있는거 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세상에 쓸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진을 볼때, 창으로 그냥 새로운걸 보는것이 끝이면, 사진에 힘과 능력을 다 안 쓴것 입니다. 사진으로 반영을 할수있는게 굉장히 중요한 점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람들한테 우리 세상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협의회장님의 회고글

김윤진 학생이 2015년 말하기 대회에서 중서부 협의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을 당시 8학년이었는데, 현재는 Glenbrook South High School 2학년을 마친 상태입니다.

나의 꿈이 사진작가가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 사진찍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클럽에서 사진가로 , 학교 신문사에서 사진 편집자로, 현재도 사진관에서 여름 일을 하고 있으며, 사진 대회에서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준범, 나이스 샷~~~~~ (3회)

오 준 범 Brian Ohr Jr. 하상한국학교 5학년



“저는 골프를 많이 좋아합니다. 골프를 치면 힘이 들기는 커녕 골프를 더 치고 싶어요.

올해는 TRAVEL TEAM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연습도 많이 하고 시합도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요즘 P.G.A.골프시합에 한국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어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것 처럼 골프도 열심히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춤추는 변호사 (4회)

고 이 슬 Eesle Koh 시카고순교자한국학교 8학년

어렸을 때 한국으로 가신 후 소식이 없는 너무나 보고싶은 엄마를 만났을 때, 변호사가 되어있는 저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만해도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국제변호사가 되면 미국과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두나라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어려움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또한 춤추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 춤을 잘 추어서 미국친구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우리 전통 춤 문화를 알려 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의 진짜 바램은요 어른이 되었을때 지금 저의 꿈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함께 나누는 사랑 (6회)

이 예 원 복음한국학교

텔레비전에서 수술을 하는 멋진 의사를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왔고 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제 꿈은 의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재 K.A.F.H.I.의 홍보대사입니다. K.A.F.H.I.는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의 약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IT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었고 기부도 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과 한국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책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면 제일 먼저 이 세상의 아픈 사람들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프리카에 있는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재단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간 환자들 마음속에 그냥 의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면 사람들이 저를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제 꿈이 무엇인지 물어오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훌륭한 의사라고 말입니다.



내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유 (12회)

이 혜 령 하상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하상한국학교 8 학년에 재학 중인 이 혜령입니다. 8 년 전 처음 한국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의 꿈은 연기자가 되는 거 였어요.

엄마가 자주 읽어주시던 한국 동화책 ‘산신령과 나무꾼’의 상황극을 아주 잘 연기했었죠. 나무꾼이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때 산신령님이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예요, 아니예요, 제 도끼는 쇠도끼예요.” “음... 정직한 나무꾼이로고...” 킨터가든 시절 아가였던 제가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이렇게 연기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저의 꿈은 많이 다양해져 갔죠. 이제 저는 15 년 후의 나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해요. 15 년후에 저는 스물 아홉 살인데요. 지금 열네 살인 제가 스물 아홉 살인 저를 상상 하기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가장 예쁜 모습이었을 나의 10 대가 벌써 지나갔다는 것이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막연히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는 투표를 할 수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제 차가 생겨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있겠지요. 물론,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의 생활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되겠지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건축 디자이너가 되는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의 다운타운은 멋진 건축물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건축학을 공부하

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제 이름을 붙인 멋진 건축물을 세우고 하고 싶어요.

1935 년에 Frank Lloyd Wright 가 디자인한 ‘미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는 Pennsylvania Falling Water House 처럼요.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시카고에 한국인이 디자인한 멋진 건축물이 세워지는 걸 상상해보세요 .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 그 힘든 일을 제가 꼭 해낼 겁니다. 또 하나는 엄마가 원하시는 작고 예쁜 집을 지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 집처럼 요. 그 집은 제 이름을 딴 첫 번째 건축물이 될 거예요.

“엄마, 왜 큰 집이 아니고 작은 집이 좋아?” “집이 너무 크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 작은 집에 작은 채소밭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엄마의 그림 같은 집... 제 머릿속에는 이미 엄마 집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엄마 집에 과자를 붙이진 않을 게예요.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지금 한글, 영어 외에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 언어 중 프랑스어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프랑스에 배낭 여행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 가서 그곳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고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상상하며 경험과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 담아올 거예요.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나가기 전 저는 용기가 많지 않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역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후로 중학교 졸업식 답사(valedictory)에 도전할 정도로 용기가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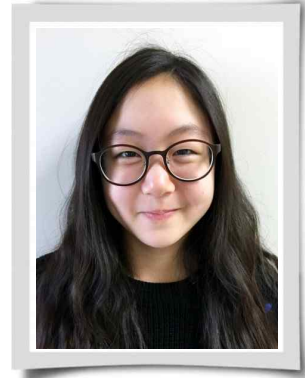
멋진 꿈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이 용기를 발판으로 꿈을 향해 헤쳐 나아갈 거예요. 언제나 뒤에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지어드릴 집을 상상하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제가 디자인한 건물을 보러 시카고에 놀러 오지 않으실래요? 감사합니다.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13회)

이데레사 하상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하상한국학교 7학년인 이데레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물어 본 질문에 분명 여러분은 커서 무엇이 될지를 상상하고 있겠죠. 저도 역시 '꿈'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커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져요. 그런데, 도대체 커서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고, 의사랑 변호사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골라 평생 한 가지 직업을 가지는 것은 아무래도 재미가 없을 거 같기도 해요. 내가 가지게 될 일은 재미있고 즐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재미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꿈이 없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친구들이 과학자나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할 때,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저도 작은 일을 하면서 크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 꿈은 꼭 내가 미래에 가지게 될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얘기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저는 엄마, 아빠, 동생, 친척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던 따뜻한 사랑을 주는 가족은 저에게 가장 큰 행복

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전 저처럼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 주위 친척들,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랑 받고 살지만,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은 얼마나 춥고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 받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투정을 부리고, 불만을 얘기하는데...

난 그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요?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큰 집을 만들어서요. 그게 제 꿈이냐고요?

아니요. 정확히 외롭고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 친구들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제가 부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기도 해요.

제 꿈은 부자 의사예요. 어려운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치료해 주며, 그 친구들에게 따뜻한 집을 지어주는 마음이 좋은 의사지요. ‘울지마 톤즈’란 영화를 보면서, 전 의사 이태석 신부님을 무척 존경하게 되었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모든 아이들은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사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요.

잠시 혼자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혼자 있는 느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모든 약하고 힘 없는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해 준다면 그 친구들도 아름다운 세상에 동참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픈 몸을 치료해 주는 의사뿐만 아니고 외로운 마음에 행복과 사랑의 삶을 찾아주는 마음씨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 함께 동참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콜로라도 지역의 꿈나무



1회

공진호 (성로렌스한글학교 8학년)

‘자랑스런 이민 2세’

2회

김리나 (성로렌스한국학교 5학년)

‘희망의 나비’

3회

최윤경 (콜로라도통합한국학교)

‘인류의 행복을 심는 의사’

4회

김유리 (콜로라도성로렌스한국학교)

‘희망의 약을 만드는 의사’

5회

정애리 (뉴라이프한국학교)

‘이해와 섬김의 세상’

6회

이승민 (새문한국학교)

‘아름다움을 나누는 사람’

7회

이예림 (콜로라도통합학교)

‘행복한 도전’

8회

해당사항없음

9회

이승원 (새문한국학교)

‘어디든지 가는 이승원’

10회

이승현 (성로렌스한국학교)

‘게임디자이너’

11회

해당사항없음

12회

유사랑 (볼더한국학교)

‘사랑이의 동물사랑’

13회

해당사항없음



인터뷰

제7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2011년 7월 15일)

나의 꿈을 찾아서 김리나의 인터뷰 (2회)

김 리 나 Lena Kim 콜로라도성로렌스한국학교

* 나의꿈 말하기 대회 수상 년도: 2006년 나의꿈 말하기 대회 제목: 희망의 나비 같은 꿈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네. 아직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는 희망의 나비라는 꿈을 위해 여라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우선, 아파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게 뿌듯하고 재밌다는걸 느꼈습니다.

아파와 함께 배운 걸 가지고 고등학교 리더십 그룹에 가입을 했습니다. 리더십을 통해, 학교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다양한 민족들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별과 오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오해도 풀고 문제를 밝히기 위해, 저희 학교에서 활동이 없던 Next Generation Voices라는 동양인 클럽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NGV 클럽을 통해,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을 위한 Conference도 주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만나 저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해결 방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Conference를 통해, 많은 학생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각자 학교에서 큰 목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재밌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자신감도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교와 성당 주일학교를 하면서 더욱더 큰 희망의 나비가 되고싶어졌습니다. 이꿈을 이루기위해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배려, 자신감 그리고 아이들이 가진 꿈에 대한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대회 준비 중, 어떤 분이 “희망의 나비”라는 글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하셨습니다. 또한 제목을 바꾸고 글을 수정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는게 너무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나비를 보면, 제가 11년 전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다짐했던 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그 꿈을 향해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저는 계속 예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 새로 바뀐 꿈은 무엇인가?

새로 바뀐 꿈은 없습니다.

*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로 바뀐 꿈은 없습니다.



인류의 행복을 심는 의사 (3회)

최 윤 경 Sarah Y. Choi 콜로라도통합한국학교 10학년



“저의 꿈은 단지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이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 암에 걸려 고통당하는 어린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병을 극복하며 남은 삶을 행복하고 밝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꿈을 이루는 중요한 자세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약을 만드는 의사 (4회)

김 유 리 Sarah Kim 콜로라도성로렌스한국학교 10학년

어떤 꿈이든 꿈이라는것은 ‘희망’이라는 정말 멋진 뜻을 품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되어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희망의 약을 만들고 싶습니다. 못고친다는 불치병도 없고 마음이 아파도 약을 먹고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김유리표 희망의 약을 개발한다고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할것만 같은 이 희망의 약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만들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약을 만든 의사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지켜봐 주세요. 20년 후에 꼭 만들 것입니다.



이해와 섬김의 세상 (5회)

정 애 리 뉴라이프한국학교

제가 꿈꾸는 세상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이 격려받고, 각자의 꿈이 인정받아 그 꿈을 펼칠수 있는 이해의 세상입니다. 저의 또 다른 꿈은 전쟁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만날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연결해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양로원을 만들어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한동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대학은 단지 지식을 얻는곳이 아니라, 마음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 합니다. 섬김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것이 지식이라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것은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적 문화위에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 주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지식을 가져 이웃을 위하여 섬시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나누는 사람 (6회)

이 승 민 새문한국학교

제 꿈은 옷감 디자이너입니다. 옷을 디자인 하면 옷만 되지만 옷감을 디자인 하면 그 옷감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 질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옷 뿐만 아니라 모자, 양말, 가방, 침대보 같은 등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부는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에도 열심히 다녀 해야겠지요? 그 다음에는 옷감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가 디자인 한 옷을 입고,가방을 메고, 또 어느 집위 커튼 으로도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싶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상상력을 동원할 거구요. 시간이 날 때마다 디자인을 많이 그릴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연습하고 공부하면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옷감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제 꿈에 끝은 아니예요. 이 꿈을 이룬 후에 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저의 디자이너 으로 만들어진 옷을 기부하여 그들을 사랑 해 준 사람의 하나로 남고 싶습니다.



인터뷰

나의 꿈을 찾아서 이승민의 인터뷰 (6회)

이 승 민 새문한국학교

* 같은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의 재능과 관심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꿈이 바뀌었습니다.

* 새로 바뀐 꿈은 무엇인가?

국제변호사

*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말하기대회의 경험으로시작해 제가토론 또는public speaking을 즐기고 좋아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을 온 후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정치와 법에 관심을 갖고있다는것을 알게되어서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일본어도 배우기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Comparative government AP 와 다른 어려운 문학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교육을 통해 제꿈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olumbia University에 합격 했습니다. 국제정치와관계 를담당하는 UN 본사가 있는 뉴욕에서 영어와 정치, 정확하게는 국제 관계와 정치 이론, 을 공부할 것입니다.

행복한 도전 (7회)

이 예 림 콜로라도통합한국학교



여러분!네~ 그럼, '스티븐 스피버그'도 잘 아실거예요.'쥬라기공원' '쥬스' 'E.T' '쉴러 리스트' 같은 멋진 영화를 만드신 영화감독 이세요.'스티븐 스피버그'는 아카데미 영화 감독상을 두 번씩이나 받으신분이세요.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아빠, 엄마, 언니랑 저, 이렇게 다섯 명인데 우리모두 다 '스티븐 스피버그' 영화를 좋아해요.그런데 특히 아빠랑 제가 제일 좋아해요.아빠는 영화가 새로 나오면 언제나 DVD를 사 가지고 오세요. 얼마 전에 우리 식구 모두다 'E.T' 영화를 또 보았어요.재미있어서 행복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스티븐 스피버그'처럼 영화를 좋아했어요.'스티븐 스피버그'는 열 두 살 부터 3분 짜리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저는 아직은 영화를 만들지 못했지만 영화 공부를 열심히 해서멋진 영화를 꼭 만들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주는 멋진 영화 만들기!"이게 바로 저의 꿈이에요.한국 영화도 참 재미있어요.한국에 훌륭한 영화 감독이 많이 계신다고 해요.

하지만 '스티븐 스피버그'처럼 아카데미 영화 감독상을 받으신 분은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제가 좋아하는 '행복한 도전'이에요.저는 무서운 영화보다는 사람들이 즐겁게 보고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영화 감독이 되려면 상상력이 필요해요.그리고 리더십



과 책임감도 꼭 필요해요.

또 많은 사람들과 협력도 잘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영화 이야기도 쓰는 것을 좋아해서 영화 노트도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놀 때도 재미있게 리드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모두 좋아해요. 영화가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창의력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여름캠프에 가서 창의력을 기르는 방법도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이 다음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멋진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인 첫 번째로 아카데미 영화 감독상을 꼭 받고 싶어요. 제가 만든 영화를 보시고 우리 가족처럼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행복한 영화를 만들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꿈을 찾아서 이승원의 인터뷰 (9회)

이 승 원 Simon Lee 새문 한국학교 10학년

*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제목 :

잘 생긴 생물과학자 이승원박사

* 같은 꿈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꿈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꿈은 무엇인가? 저는 새로운꿈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과 꿈이 많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직 배울것과 경험할 것들이 많기때문에, 제가 새로운꿈은 아직 만들어 가는중입니다.

*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해 많은것을 경험하고 배우고있는 중입니다.



인터뷰

나의 꿈을 찾아서 이승현의 인터뷰 (10회)

이 승 현 Toby Lee 성로렌스한국학교 11학년

*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제목: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꿈은 게임 디자이너이었습니다.

* 같은꿈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꿈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꿈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것은 “너는누구니?” 라고 물어 보는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질문의 답은 무척이나 어려운답입니다. 저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 새로운 꿈을 이루기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제가 누군지 알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신을 더욱 더 알기위해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갈 예정입니다.

사랑이의 동물사랑 (12회)

유 사 랑 불더한국학교



안녕 하세요!

콜로라도 불더에서 태어난 유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바로 동물들과 제 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동물들은 모두 저의 가족 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가족을 가지게 되었나 궁금해 하실것

저에게는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오랫동안 동물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한글학교가 끝나면 오빠가 일하는 곳을 항상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빠가 동물들을 위해서 했던일들, 예를들어 동물 우리를 청소하고 밥과 물을 챙겨주고 산책 하는것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불쌍한 동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픈 동물도 많았습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을 보게되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꼭 의사사가 되어 불쌍한 동물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겠다" 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저는 학교공부와 동물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숙제가 많거나 친구들과 놀고 싶을땐 처음에 가졌던 "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 줘야지! " 하는 마음을 깜빡!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게을리지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어항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가 귀찮아서 하루~이틀~ 미루던 어느날! 물고기들이 죽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의 귀찮음이 동물들에겐 죽음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책임" 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안좋다고 강아지 산책을 거르고, 친구집에 놀러 간다고 고양이 밥주기를 잊어버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의사! 동물들의 의사가 되는 사람에게 "책임" 이라는 단어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학생, 동물을 사랑하는 저의 책임은 산책, 밥주기, 목욕 시키기 정도지만 수의사로서의 저는 동물들의 생명을 다루는것이 책임 이겠지요?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제가 할수있는 책임감을 키워 자신감으로 튼튼히 만드는 일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숙제도 많고 방과후 활동도 많아 졌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점점 저에게도 많은 양보와 희생이 따라 오겠지요? 하지만 동물식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배운 몇가지를 이야기 하며 제 꿈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어쩌면 사람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 친구는 내 맘을 몰라 주지?"

"왜 저 친구는 나랑 안놀아줄까?"

"왜 저 친구는 나에게 아픈 말을 하지? "

이상하게 사람친구와는 말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틀이 있는데도 생각이 통하는것이 어렵게만 여겨질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친구들은 "교감" 말 그대로 마음을 교환하는 반복 패턴을, 사랑을 담아 전하면 오히려 잘 통하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환자에게 동물들을 통해 병을 고치는 " 에니멀테라피 " 라는 것도 우리는 자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수단이 있지만 오히려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 대신 상대방의 제스처나 표정, 감정을 나타내는 소리의 크기로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는 동물들을 보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을 친구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꾸준한 관찰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제 꿈은 이런 동물 친구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더 많은것을 배우고 더 많은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얻는 수의사 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플로리다 지역의 꿈나무



1회

최자연 (겐스빌한국학교 7학년)

‘행복을 나누어 주는 춤의 요정’

2회

최진주 (탐파통합한국학교 5학년)

‘욕심쟁이의 꿈’

3회

케이트 하울랜드

‘유엔에서 일하는 나를 꿈꾸며’

4회

심여미마 (올랜도푸른동산한국학교)

‘열린 마음 선생님 되기’

5회

지애 다지어

6회

하형은 (게인즈빌한국학교)

‘꿈을 보이게 디자인 하는 사람’

7회

해당사항없음

8회

곽수지 (잭슨빌토요학교)

‘골프의 여왕’

9회

박애리 (올랜도푸른동산한국학교)

‘국제 판사’

10회

배한샘 (탐파통합한국학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의사’

11회

해당사항없음

12회

해당사항없음

13회

백이정 (탐파통합한국학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들’



UN에서 일할 나를 꿈꾸며 (3회)

케이트 하우랜드 Kate Howland

게인스빌한국학교 11학년



“저의 꿈은 UN에서 일하며 가난과 싸우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폭력과 무지와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이 가난을 없애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외국어와 앞으로 공부할 국제관계 및 국제법이 가난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마음 선생님 되기 (4회)

신 여미마 Jemimah Shin 올랜도푸른동산한국학교 11학년

나의 꿈은 지금의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처럼 주말 한국학교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더 잘 알고 우리민족을 더 잘 이해하는,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음에 감사할 줄 알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또 항상 아이들의 곁에서 그들과 같은 높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과 같은 귀로 세상을 들으며, 그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선생님,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된다면 저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해주신 한국학교 선생님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양 학자가 되는 나의 꿈 (5회)

지애 다지어

저의 꿈은 해양학자가 되어 바다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저는 'The Earth' 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구의 환경을 파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겁도 났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또 돌고래 말을 배우고 싶습니다. 돌고래는 세상에서 여덟 번째로 똑똑한 동물입니다. 우리에게 한글이 있듯이 돌고래도 자신들만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돌고래의 말을 이해할 이해할 수 있다면 돌고래가 들려주는 바닷속 이야기가 바다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다가 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돌고래에게 우리의 한글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한글 인사도 알려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놀러 갔을때 돌고래가 다가와 인사를 한다면 오늘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꿈을 보이게 디자인 하는 사람 (6회)

하 형 은 계인즈빌한국학교

저는 크면 런던에 있는 Royal College of Art 에가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차를 디자인 할 것입니다. 그 차는 빠르게 가는 차가 될 수도 있고, 자연에 좋은 차나 오랜 시간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차 디자이너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말면 저는 아이들을 위한 Art School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아트로 도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집과 빌딩을 디자인 하는 건축가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벽돌로 만든 예쁜 집을 디자인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저의 엄마께서 벽돌 집은 정말 좋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mpire State Building 같이 그 도시의 이미지, 전통과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멋진 빌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꿈들을 이루고 싶고 저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혹시 이꿈을 못 이룰 수도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면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겐 꿈이 있었고 최선을 다 했으니까요.



골프의 여왕 (8회)

곽 수 지 잭슨빌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잭슨빌 토요한국학교를 다니고 있는 13살 곽수지 입니다. 저는 LPGA 선수가 되는게 제 꿈입니다.

제가 골프를 시작한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정말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골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더운날씨에 땀을 뻘뻘 흘려 가며 조그만 공 하나를 맞히려고 애쓰는 어른들의 모습이 참 웃기기도 하고 안타까와 보였습니다.

그런 제가 골프를 배우기로 결심한 첫번째 이유는, 아빠와 함께 골프를 치시는 많은 친구분들이 저를 보기만 하면 키도 크고 체형의 조건이 골프치기에 좋아 보인다고 배워보라고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그 웃기게 보였던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기에 쉬웠던 그 공맞히는게 얼마나 어렵고 열을 받게하는 지 번번히 공대신 잔디만 퍼서 날려보냈지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않 고 골프를 계속하게된 두번째 이유는, 힐링캠프라는 TV프로그램을 통 해 골프선수 최경주 아저씨를 보고 포기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최경주 아저씨가 골프라는 단어를 처음듣고 친구와 나눈 대화중 “골프 가 뭐다냐?” 라고 묻자 친구가 “나도 몰라야!” 하고 말할정도로 골프라 는 것 을 알지도 못했고 시골에서 농사하시던 부모님의 반대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포기하지않고 극복하여 그냥 골프선수가 아닌 PGA세계 최고의골퍼가된최경주선수의모습을보고많은감동을받았고어느 날 그 TV에서 보았던

최경주선수가 꿈나무라는 선수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때 그 모습이 멋있고 한국인으로서 한국 의 문화를 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같은 한국인의 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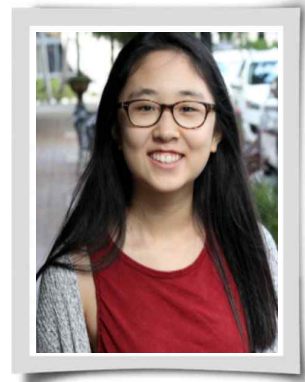
아직은배운지얼마되지않아서많이부족하지만조금씩조금씩더나아지는것을 느낄때마다 연습한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드에 나갈때는 골프카드를 운전하는것이 너무 재밌고 내가 친공이 잘맞아 '딱' 소리와 함께 하늘을 나를때는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도 함께 날아가서 상쾌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한 제가 공을 칠때 나 퍼팅을 할때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는데 엄마가 아주~~~ 좋아 하십니다.

앞으로 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서 LPGA의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경주 선수처럼 대한민국의문 화를 알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이웃을 돕는것에서도 최고 가 되는 콕수지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들 (13회)

백 이 정 템파통합한국학교



여러분들은 어릴적 꿈을 기억하시나요? 백만장자, 슈퍼히어로. 그 어떤 것도 큰 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이런 꿈들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또 어른이 되어서 일상 생활에 빠져 살게 되면 이런 꿈들은 모두 머리 속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아이처럼 소중한 꿈을 지켜 가고 싶습니다.

제 꿈은 소아과 의사가 되어서 아픈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낭포성 섬유증의 치료법을 찾고 싶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사람들이 걸릴수 있는 여러 질병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중에는 낭포성 섬유증이 있었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은 유전 질환으로 폐나 간 같은 몸의 여러 기관을 침범하여 세균감염과, 소화장애, 영양장애를 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특히, 미국 어린이들에게 크게 연관된 병입니다. 스물 다섯명 중에서 한 아이가 걸리는 질병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법을 찾고,이 병에 걸린 아이들이 고통없이 살수있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가 되고싶은 또다른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와 한국학교에서 자원봉사를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쁨과 순수함을 바라보면서,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로 일했는데 그 곳 아이들에게서 많은 감동을 받았 습니다. 풍선으로 간단한 강아지나 뱀을 만들어주었는데 아이들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어도 못하는 처음보는 외국인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욱 아이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나보다 훨씬 어린 여자아이가 동생 손을 잡고 엄마 없이 자상하게 돌보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점심 시간에 음식도 먹여주고, 같이 놀아 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이 기쁘게 살도록 소아과 의사가 되어 내가 사는 곳 뿐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부족한 나라에 가서 무료로 아이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쁨을 받은 만큼 되돌려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기뻐하는 삶.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꿈을 이루기위해 노력하는 저를 응원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와이 지역의 꿈나무





1회

이정우 (하와이한인사회학교 9학년)

‘꿈의 계단’

2회

이유진 (호놀룰루한인문화학교 9학년)

‘나 와 세상을 연결하는 딱끈한 끈하나’

3회

김샤론

‘한국계 미국인 김샤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다’

4회

김단비

5회

정원배 (무량사한국학교)

‘변하는 꿈, 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6회

해당사항없음

7회

해당사항없음



8회

해당사항없음

9회

이빛나 (한국사회학교)

‘나는 심리 치료사가 되고 있어요’

10회

해당사항없음

11회

정성호 (하와이한인사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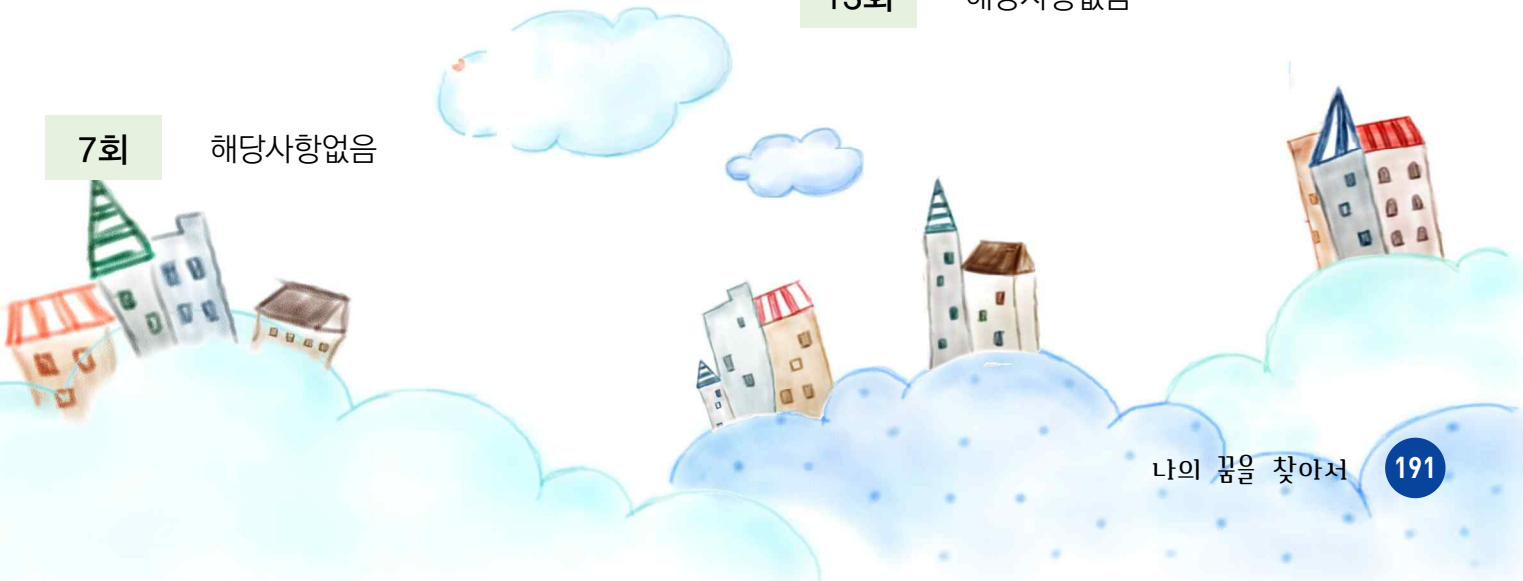
12회

박예은 (하와이한인사회한국학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13회

해당사항없음





한국계 미국인 김샤론,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다 (3회)

김 샤 론 Sharon Kim 하와이한인사회학교 7학년



“저는 커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먼 훗날 나 같은 어린이들이 해보고 싶은것을 무엇이나 할수 있고
가고 싶은곳을 어디나 갈수있는 책을 쓸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작지만 큰힘을 가진
동쪽의 아름다운 나라로 소개할 것입니다. 나같은 어린이들이 순수한 눈과
마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아주 아름답게 바라볼수 있도록 책을 꼭
쓸 겁니다.”

등대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4회)

김 단 비 Dan Bi Kim 하와이비전한국학교 5학년

하와이 와이키키해변 끝에는 깊고 어두운 태평양 바다에서 배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작은등대가 있습니다. 저는 등대를 생각할 때마다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셸리반 선생님입니다. 어느날 아빠 들려주셨던 애니 셸리반 선생님의 어릴적 이야기를 듣고난 후 나도 애니 셸리반 선생님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 야지'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배불리먹을 양식을 만드는방법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되고도 싶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갈 곳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변하는 꿈, 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5회)

정 원 배 무량사한국학교

어린 시절의 꿈은 자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살 때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뒤흔들 수 있는 소방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렁찬 싸이렌 소리 와 거인이 탈 만한 큰 자동차에 타고 달리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저에게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자라면서 우연히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는 영화를 보고나서 감동을 받고 군인이 되려고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예비군으로 계시는 군복 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겐 이상 그 자체 입니다. 여동생 셋에 4대 독자인 관계로 소방관과 군인 같이 위험한 직업을 택해서 어머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평소에 컴퓨터와 수학을 좋아해서인지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과 과학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제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나의 꿈은 고아원 원장님 (6회)

이 경 미 하와이한인사회 교

얼마전 일어난 아이티에 큰 지진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TV 에서 보면서 고아원 원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길거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혼자 길을 걸으며 먹을 것을 찾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걷고 있는 아이들, 사랑에 굶주려서 희망도 없고 웃음도 없는 아이들을 보고 저는 이 아이들에게 웃음과 사랑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희망의 웃음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은 치료를 해주고, 외로운 아이들은 위로를 해 주며,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어 주어서, 그 아이들도 이 다음에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같은 원장님, 친구와 같은 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가족 고아원 원장님, 이것이 저의 멋진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1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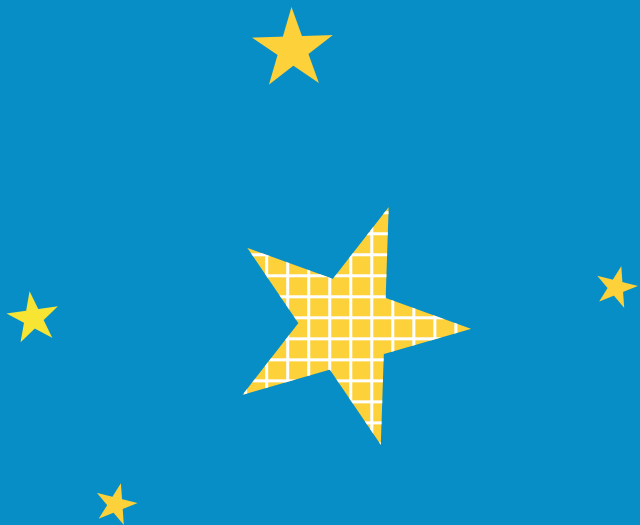
박 예 은 하와이한인사회한국학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와이 한인사회학교에 다니는 6학년 12살 박 예은 입니다. 저는 카이무키 중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저의 취미는 바이올린을 하는 것이고, 노래 부르면서 춤 추는 것이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리멤버"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갑자기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란 직업은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리멤버라는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서 무죄를 밝혀 가족들이랑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변호사란 직업이 좋아졌어요. 변호사란 직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아빠가 말씀했듯이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만 사랑하는 변호사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법률학교에 다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미래가
웃어요



나의 꿈을 찾아서

발행인: 이승민

편집인: 윤한나 편집디자인: 김은희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발행일: 2017년 10월 9일

Copyright ©2017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All rights reserved.



재미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실현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9 781947 158102 9

ISBN 978-1-947581-02-9

